
2020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0 ANNUAL REPORT

2018
2019
202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II 2020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014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 016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 018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
- 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022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024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 026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 028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 방안
- 030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구
- 032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일반연구

- 034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 조사(Ⅳ)
- 036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Ⅲ):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038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 040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Ⅲ)
- 042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엽 개발 및 적용
- 044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 046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Ⅱ):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 048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1)
- 050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Ⅲ): 컨설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 05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V):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시범사업
- 054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Ⅱ):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 05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수시연구

- 058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 060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 06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 064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066 코로나19 보육정책 대응 백서
- 068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070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델 연구
- 072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 일수 개선 방안 연구
- 074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III

2020년도 주요활동

주요행사

- 078 육아정책 심포지엄
- 079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080 KAL 열린토론회 및 KAL 현장간담회
- 081 국제세미나
- 082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083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 084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 087 업무협약

주요 간행물

- 088 육아정책포럼
- 090 육아정책 Brief
- 091 Issue Paper
- 092 KICCE Policy Brief
- 093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094 육아정책연구
- 096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V

2021년도 추진계획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0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01 중점연구사업

2021년도 사업개요

- 102 기관고유사업
- 105 일반사업
- 107 2021년 연구사업 총괄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었던 2005년에 설립되어 보육과 유아교육,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과 평가를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 육아문화 개선 등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 관련 자료를 보면,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인구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의 재설계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은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육 중심의 정책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가치를 보완하여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COVID-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요구와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조 변화와 육아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육아정책을 선도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가정, 사회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Sang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도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육아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돌봄, 육아친화환경 등 폭넓은 주제의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각 분야의 돌봄 문제에 집중하여 코로나 19 관련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보육정책 백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등 현장 적용성이 높은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아형평성 문제,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진단,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그리고 양성평등 어린이집 연구 등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주제들을 발굴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돌봄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지고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가정,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연구 등을 추진하여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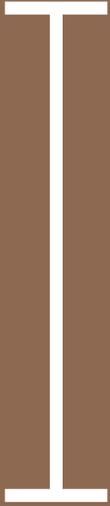
개정 누리과정 효과 및 모니터링, 어린이집 인력 근로시간 및 인력배치, 보육서비스 컨설팅 지원 등 영유아보육·교육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육아친화마을 연구, 행복한 육아문화 등 육아환경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육비용 연구와 국제연구는 지속적인 연구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 비용 지원, 육아물가지수, 아동분야 돌봄양육비용 등 비용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아태지역 육아관련 국제연구를 연속과제로 수행하여 매년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이슈에 대해 부처, 각계 전문가, 현장과의 간담회, 포럼을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육아정책포럼, 이슈페이퍼, 육아정책 Brief, 영상보고서, 카드뉴스 등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추진한 주요 연구와 사업들의 성과들에 주목하여 주시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과제와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C H I L D C A R E A N D E D U C A T I O N

- 설립목적
- 주요기능
- 경영목표
 - 연혁
 - 조직도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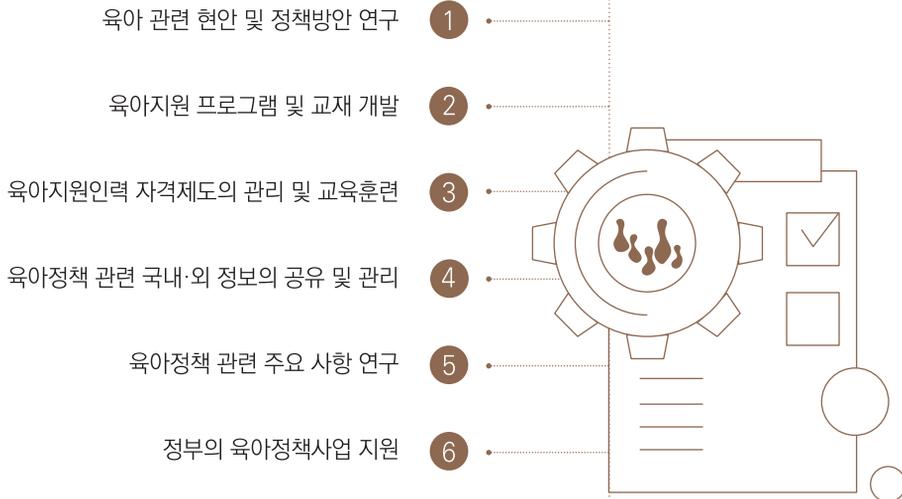
설립목적

PURPOSE OF ESTABLISHMENT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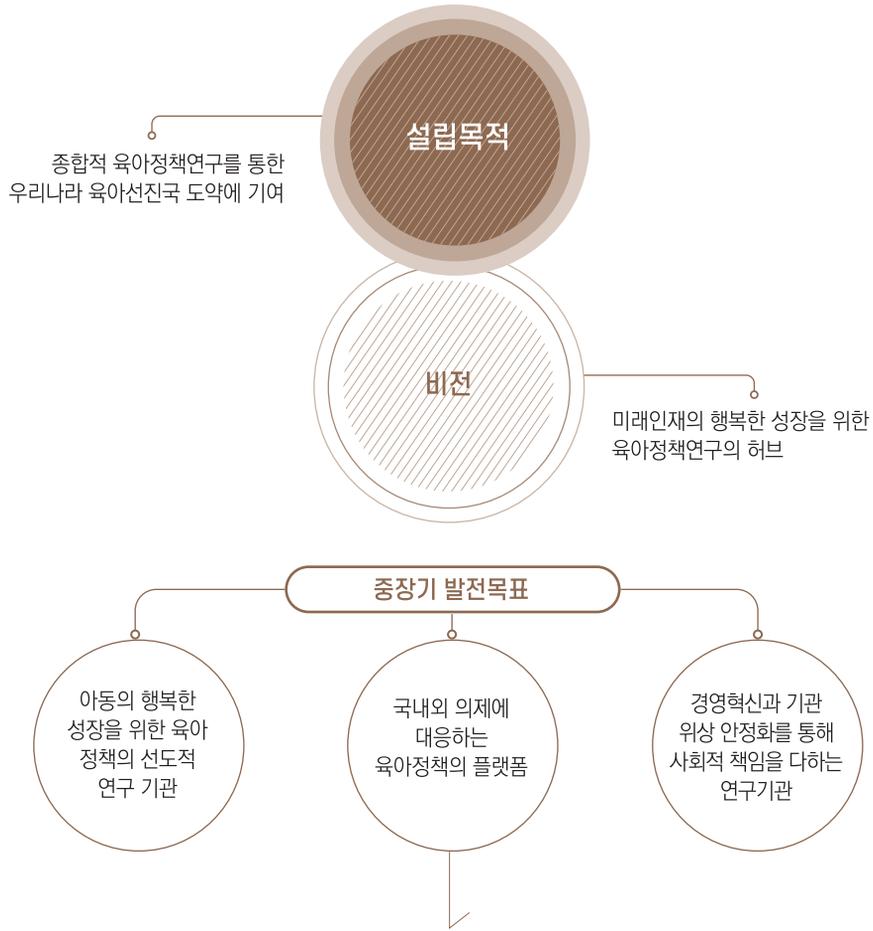
주요기능

MAIN FUNCTION



경영목표

MANAGEMENT GOALS



[경영목표] 추진전략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 아동 권리와 생애주기에 기반한 연구영역 확장
- 미래대응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연구 강화
- 육아친화적 가정 및 사회 조성을 위한 연구 주도
- 정책화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관리 체계 개선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 포스트코로나 대응 국내·외 육아정책연구 플랫폼 활성화
-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성과공유 다각화
- 학제 간 융합과 협력을 통한 육아정책연구생태계 조성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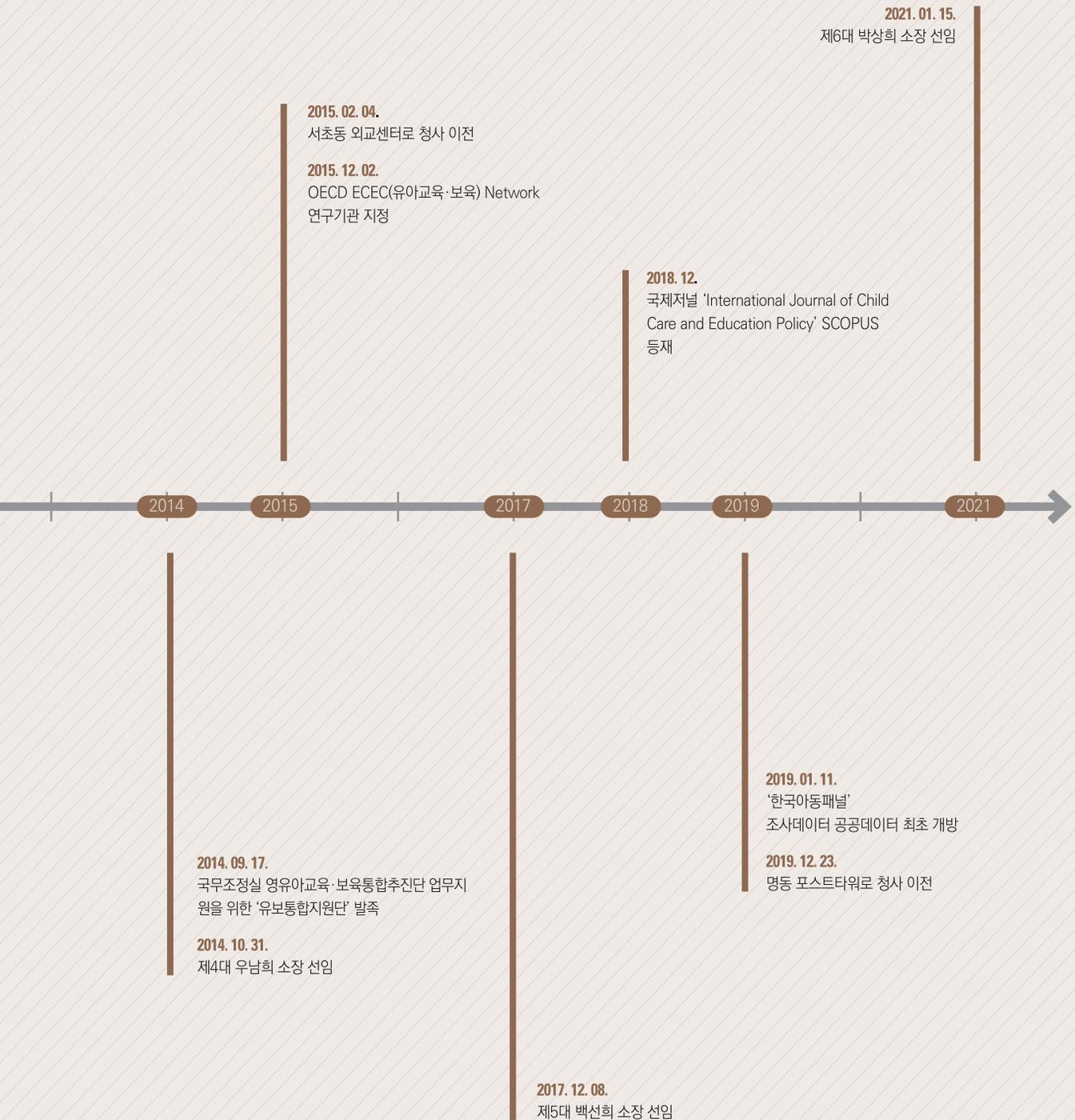
- 법인화 추진과 인권·윤리경영 강화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조직문화 강화
-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관리 효율화

연혁

HISTORY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6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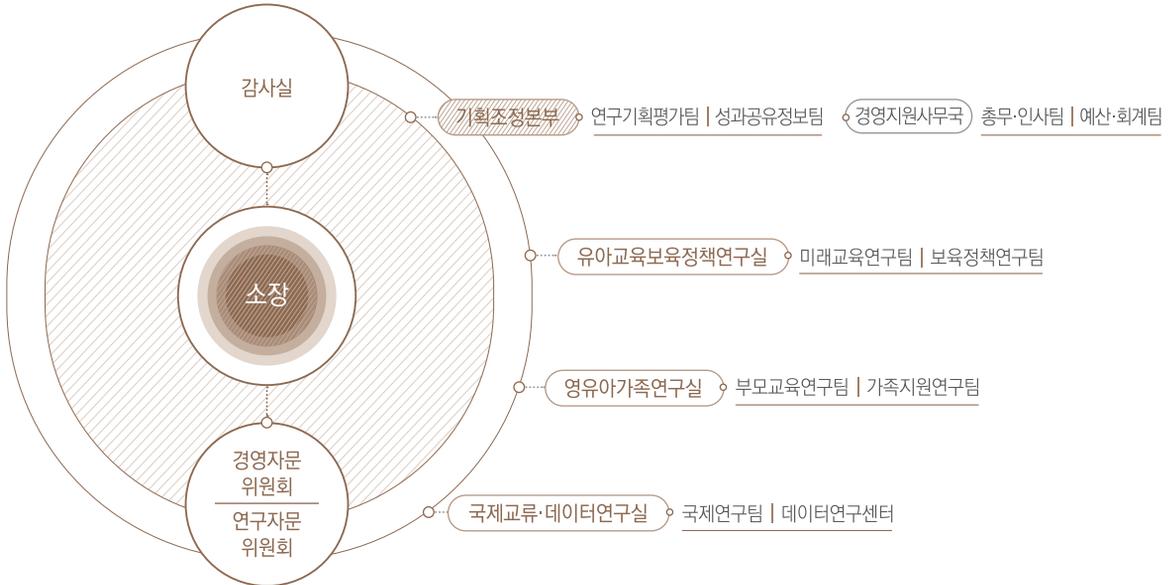




조직도

ORGANIZATION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유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국, 9팀, 1센터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곽노의(前 서울교대 교수)
 김영옥(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현수(명지병원 본부장)
 도미행(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문용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성영준(SBS 시사교양본부 PD)
 양진욱(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이수연(한국위생관리연구소 대표)
 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가나다 순

연구자문위원회

강정원(한국성서대 교수)
 김경철(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원대 교수)
 김명순(연세대 아동학과 교수)
 김희연(세종대 유아교육전공 교수)
 손인숙(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 건국대 의대 교수)
 서영미(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심미경(한국아동학회 회장, 인제대 교수)
 윤혜미(한국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경화(부경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병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중부대 교수)
 이삼식(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이완정(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이정옥(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임부연(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선옥(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덕성여대 교수)
 정선아(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부경(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조형숙(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혜영(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창원대 교수)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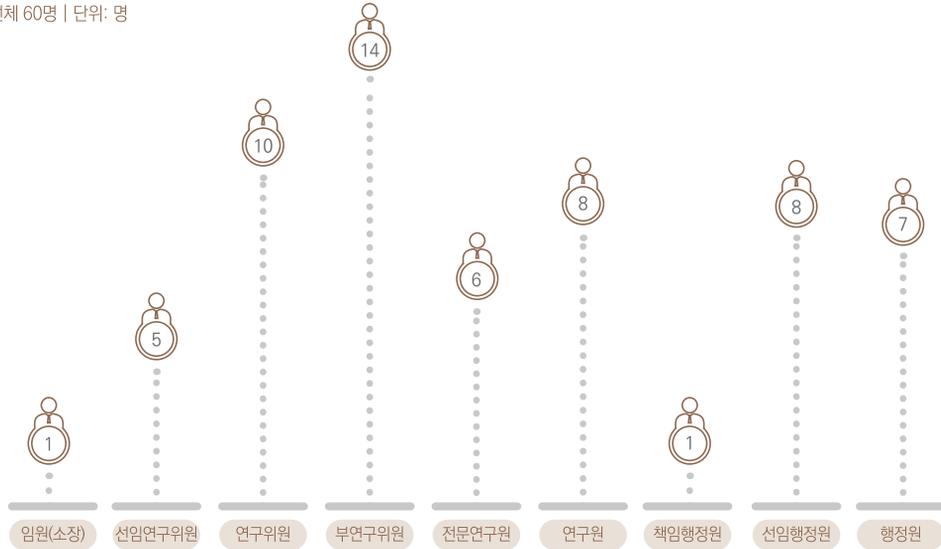
일반현황

*2021. 3. 31 기준

GENERAL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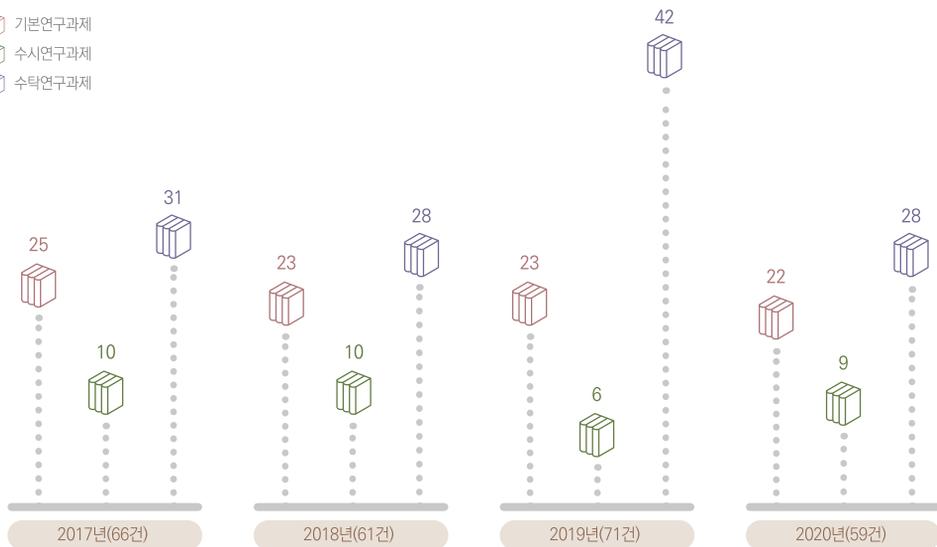
*전체 60명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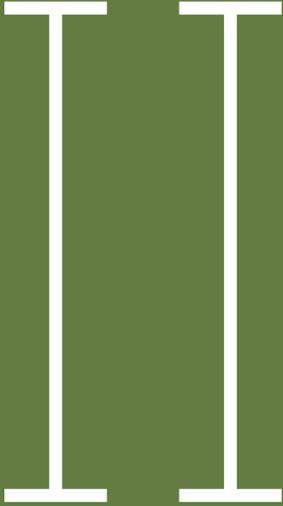


연구현황

*연구시차일 기준 | 단위: 건

- 기본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연구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C H I L D C A R E A N D E D U C A T I O N

- 기본연구
- 일반연구
- 수시연구

포용적 사회를 위한 육아형평성 제고 방안

김동훈, 양미선, 김문정

| 배경 및 목적 |

-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때 포용적 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육아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 포용적 복지국가 및 형평성 관련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를 검토함.
- 2차자료 분석: KICCE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육비 지출형평성과 아동수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전문가 조사: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자 39명을 대상으로 포용적 복지와 육아형평성 개념, 육아형평성 수준, 육아정책분야에서 형평성 개선 의견을 조사함.
- 부모 조사: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함.

| 연구결과 |

- 육아형평성 수준 실증분석
 - 양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증가하였음.
 - 자녀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보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식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다른 지역 거주가구보다 양육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 대도시지역 가구의 양육비 부담 가능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
 - 영유아가구의 생활비 지출액 중 양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36.92%인데 지니계수 기여도는 45.99%로 나타나, 양육비용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더 큰 상황임.
 -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는 더 낮아져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양육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따라 불균등한 분포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수준이 증가하고 특히 교육·보육비 지출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양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비는 사치재의 성격을, 교육·보육비는 필수재 성격을 보임.



- 양육비 지출부담 형평성은 양육비 지출액 집중지수와 양육비 지출부담 집중지수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금액은 많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출부담은 커짐.
-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영유아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었음.
 - 가구특성별로는 외벌이가구가 맞벌이가구보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컸고, 읍·면지역-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연령의 확대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육아정책 형평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편차가 크지만 형평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는 응답비율이 73.7%로 가장 많고, 형평성이 높은 부분이 더 많다는 응답은 15.8%,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다는 응답은 10.5% 수준이었음.
- 전문가와 부모대상 요구조사 결과, 육아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지원의 확대를 기반으로, 보다 서비스 지원에 역점을 둘 것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공적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 현금지원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급액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특성이나 물가를 고려한 추가지원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논의도 검토가 필요함.
- 서비스지원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기초 하에, 농어촌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실시간 연계플랫폼 구축, 장애아 조기 개입 및 전문가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속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이 필요함.
- 시간지원 정책으로는 시간지원제도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으로 실질적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 취약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서비스 개선을 제안함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인력배치 합리화 방안

김아름, 김은설, 조혜주, 양성은

| 배경 및 목적 |

-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특례 업종에서 보육교사(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점심·휴게시간, 연차제도 등 근로자로서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전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정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선행연구 및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를 검토함.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함께 검토함.

| 연구결과 |

-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운영 실태
 - 원장은 1일 약 9.46시간, 기본반 담임교사는 8.59시간, 연장반 전담 교사는 4.3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 근로시간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휴게시간 및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기본반 담임교사의 경우 기본적인 보육 업무 외에 기타 행정 업무, 청소, 행사준비 등의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법정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인력배치 실태 등
 - 보육교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육아휴직 83%, 산전후 휴가 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54.3%에 불과함.
 - 이는 대체교사 수급과도 관련되는데, 대체교사 수급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신청이 83.3%로 조사되었으나,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근로시간 보장 및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 분석

- 기본반 담임교사의 63.1%가 낮잠 시간에 1시간 이내의 휴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를 선호하는 교사는 24.3%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8.7%는 1시간 조기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장반 전담교사의 경우에도 보육 활동 중간에 휴게 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41.5%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21.9%에 불과하였으며, 55.3%는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원장의 경우 영아 보조교사(25.3%), 통합반 전담 교사(14.3%), 연장반 전담 교사(12.3%), 비담임교사(8.8%) 순으로 추가 인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기본반 교사의 경우 영아 보조교사(29%), 위생원 등 청소 지원 인력(15.6%), 연장반 전담 교사(14.8%), 통합반 전담 교사(13.1%) 순으로 추가 인력을 선호하였음.

| 정책 제언 |

-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에 관하여 어린이집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례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휴게 시간은 가급적 아동과 분리된 공간에서 갖도록 이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1안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되, 계약서상 점심시간 및 낮잠 시간과 같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고시로 시행하는 방안임.
-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배치의 합리화 방안으로, 현재 보육교사가 휴가 등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원받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체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대체 교사의 인력풀을 많이 확보하여, 희망 시 원활한 인력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추가적 인력배치에 관하여는, 보육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법정근로시간의 준수 및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보조 인력을 확보하거나 교사의 근무를 투담임제 혹은 3교대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방안 연구

조숙인, 김나영, 장미나, 박은영

| 배경 및 목적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어려움이 극대화됨. 맞벌이 가정의 안전과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탄력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연령과 부모 근로특성에 주목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함.
- 맞벌이 부와 모의 일상과 정서, 인지 경험 등을 쌍(dyad)으로 분석하여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맞벌이 가구 특징, 정부 기본 계획 방향, 국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육아지원 서비스, 독일 사례, 선행연구
- 설문조사: 막내 자녀 연령 10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맞벌이 1,050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근로 특성별, 자녀 연령별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 경험표집법: 예비조사 맞벌이 부모 7쌍(14명), 본 조사 맞벌이 부모 57쌍(114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상 생활 구조, 일상 정서 경험, 일주일 동안의 일·가정 양립 경험 비교
- 심층면담: 맞벌이 부모 11쌍(22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요구 조사

| 연구결과 |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및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 맞벌이 부의 휴가/휴직제도 이용이 점차 증가함. 가족돌봄휴가 이용이 코로나19로 인해 높게 나타남. 모든 휴가/휴직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유로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고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게 된 경우가 절반 정도임. 재택/원격 근무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맞벌이 부모의 근로 특성 보다는 자녀 연령이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과 육아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을 제외하고 근로 특성의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가 전반적으로 유연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함.



- 맞벌이 부모의 일상생활과 정서경험
 - 맞벌이 부모다 모의 자녀 양육 시간이 여전히 높게 나타남. 자녀 돌봄에서 맞벌이 부모다 모의 부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정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는 같은 활동을 하는 순간 비슷한 느낌을 받지만, 유아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가정 내 자녀 양육 활동 영역에서 맞벌이 모가 부모보다 더 낮은 긍정적 느낌과 더 높은 부정적 느낌을 보고함.
-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요구
 -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지원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함.
 - 맞벌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부모의 지원임.

| 정책 제언 |

- 맞벌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 구축
 - 휴가/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근무 형태의 다양성 보장, 제도의 적극적 홍보, 아버지의 제도 이용 확대
 - 제도별 개선안: 휴가 기간 확대, 급여 대체율 상향, 유연근무제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분위기 형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 복지 향상을 통한 맞벌이 부모 지원
 - 기업 인식, 직장문화 개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개인 정비 시간 제공, 직장-가정 연계 지원 등
- 맞벌이 부와 모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 전략 구축
 - 남성 대상: 성평등, 자녀 양육 교육, 자녀 양육 인센티브 제공/ 여성 대상: 조직 만족도, 조직 충성도 함양을 위한 지원
- 가정 내 공정성 확보 - 부모 공동양육 촉진
 - 가정 내 공정한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돕는 워크북, 매뉴얼 제작 배포, 사내 부부 상담 제공
- 자녀 연령별 맞춤 육아 지원
 - 가족 지원 강화: 조부모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홍보 확대, 질 관리,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영유아기 지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맞벌이 점수 세분화, 어린이집 연장보육 질 향상, 시간제 보육 제공 시설 확대
 - 초기 학령기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확충, 방학 중 돌봄 지원,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기관 인증 및 관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이재희, 이정림, 엄지원, 김희선

| 배경 및 목적 |

- 산모·신생아의 건강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산모·신생아 대상 건강지원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과 정책 발굴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

- 국내·외 산전·후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등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는 관련 연구 검토
- 출산한 지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의 여성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데이터 분석

| 연구결과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 임신과 출산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고령 출산과 미숙아 출산이 증가함.
 - 산모의 고령 출산은 임신성 질환 경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 발달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후관리 정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최근 지속적인 지원 범위 확대와 공급확대로 인해 산후관리사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장 반발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간에는 운영 비용, 종사자 처우, 서비스 질적 수준 등의 편차가 있었음.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현재 전국 사업(임산부 영아 방문 건강관리)으로 시범사업 중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산모조사 결과

- 산모의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4.25주였고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에 대한 응답은 평균 6.37주였음.
- 산후 1주차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53.0%였으며 2주차에는 38.3%였음.
- 신생아 돌봄,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관리 교육은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8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전문가 조사 결과

- 전문가 조사 결과, 출산 후 2주 이내 적절한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6주 시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그 이후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산후관리 관련 정책 개선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산후우울증 관리, 공공산후조리원, 발달 지원 및 상담 순이었음.

| 정책 제언 |

- 임신·출산·산후조리 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국가 지원의 체계성 강화, 다양한 모자보건정책 및 산후관리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신부등록제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함.
- 출산가구에 지급하는 보편적인 산후관리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였음.
- 모든 출산 가구에 산후관리 명목으로 총 120만원(양육수당을 제외하면 100만원)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이를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안을 제안함.
- 전반적인 산후관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산후관리 바우처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을 제안함.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무분별하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감시하고 표준화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III):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도남희, 이정원, 김지수, 김명중, 김병철, 소마 나오코, 야오젠핑

| 배경 및 목적 |

- 한국, 중국과 일본은 저출산 양상과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공통의 과제와 함께 국가의 지속성을 위한 육아환경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인식과 실재를 파악하여 향후 더 나은 육아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국가별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각 국가별 유사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3년간의 한·중·일의 출산과 육아정책의 종합을 통한 각국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연구방법 |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 공동연구진으로 구성
- 자문회의 및 간담회
- 사례조사와 전문가조사 실시

| 연구결과 |

- 한·중·일의 주요 정책과 현황
 - 한국의 정책은 임신기, 육아기의 휴가제도 및 유연근무제와 직장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서 기업과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출산수당과 출산의료 대우를 골자로 출산보험과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통합의 전면 추진에 힘쓰고 있으나 중국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육아 시간 보장 지원이 없음.
 - 일본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 휴직률은 높은 편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법의 규정과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는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한·중·일의 직장의 육아환경 사례(각 국별 3개 사업장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
 - 출산 전후 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반적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조사된 사업장에서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기간과 비용에 있어서는 국가와 기업규모별 차이가 있음.
 - 육아휴직이 주로 선호되나 중국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사용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육아 서비스로서의 직장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비용 관련은 국가별로 차이가 두드러짐.



- 유연근무제 관련은 한국과 일본은 비교적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도 있고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의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T 업종이나 대규모 금융업에서의 이용률이 두드러짐. 한국의 경우는 상당 규모의 사업장이므로 직장어린이집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본이나 중국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음.

• 한·중·일의 사회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 임신·출산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인식, 구비 및 필요성이 높았으며 도움 정도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한국의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잘 구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유치원으로 응답하였고 일본은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이 높고 육아휴직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함.
-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 모두 임신·출산기나 육아기 지원 제도에 비해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소 낮다고 보았음.

| 정책 제언 |

- 한국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고용정책과 이들의 결혼관의 변화에 부합되는 일·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중국은 출산지원제도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개선이 필요함.
- 일본은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역할 부담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육소의 대기아동 문제 해소가 시급함. 향후 일하는 방식의 선택으로서 기업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되길 바람.

통일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 연구

박창현, 김나영, 김지수, 최민수, 김정현

| 배경 및 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통일대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

-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문헌 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소셜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북한 관련 신문기사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의견 조사
- 개별 심층 면담 및 FGI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독일 현지 전문가를 통한 사례 분석 및 통일 이후 독일의 영유아교육, 보육 현황에 대한 문헌 분석

| 연구결과 |

- 북한의 영유아 수, 유치원과 탁아소 수도 감소세임.
-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공산주의 혁명인재 양성을 위한 정치사상교육을 최우선시함.
- 2013년 유치원 높은 반 통합교과서 5권을 도입하여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
- 탁아소 운영은 이전 시대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보다 커짐.
- 신문기사 분석 결과
 - 김정은 시대에는 의무교육,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유치원은 주로 사상과, 정책, 강력, 인재 등과 탁아소는 대북, 식량, 결식, 유니세프, 의료 등과 관련이 있었음.
- 독일 통일 사례 분석
 - 통일이후 독일의 경우, 서로 다른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유아교사들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음.



| 정책 제언 |

- 남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 필요
- 유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방향성 제시
 - 통일교육지원법 상 유아 포함,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통일교육 포함한 누리과정 개정 제안
- 유아교육, 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포용 정책과 연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 필요
- 영유아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대상 북한 이해교육의 재구조화, 교사교육제도 개편
-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
-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영유아교육연구센터(가칭) 마련
 - 자료 및 정보 제공, 학술연구, 인적교류 플랫폼 구축
-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3단계 통일반안 제시, 단계별 교류, 정책모델, 연구방안 제시
 - 평화 및 교류협력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최윤경, 박은정, 김보미, 우석진

| 배경 및 목적 |

- 정부는 저출산의 시대적 과제에 당면하여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Community Care)을 추진하고 있음.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회·경제 체계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 별 이행(안)을 공표함(2018. 8).
- 그러나 주요 국정과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축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저임금/저평가의 주변부에 머물러있는 돌봄노동의 가치와 돌봄참여의 성별 불균형 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모두가 참여하는 권리/행복으로서의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이에 기반한 돌봄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아동분 야 돌봄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가정 내 돌봄의 양성평등 참여와 가정 밖 돌봄인력의 일자리 질을 중심으로 당면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2차자료(조사자료 및 패널데이터) 분석
- 초등 3학년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N=1,069)와 교육·보육·돌봄 인력(N=829)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돌봄인력 면담조사, 다학제적 전문가 자문회의
- 돌봄경제포럼 개최(세션1-학계전문가, 세션2-돌봄현장실무자)

| 연구결과 |

- 돌봄인력 현황
 - (규모) 아동 대상 교육·보육·돌봄 인력은 전체 약 68만 4천명으로(지자체돌봄센터 미반영), 지역아동센터와 민간육아도우미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이 종사함. 성별분리통계 부재 등 돌봄인력의 범주와 성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 (임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돌봄인력 응답 결과, 월 평균 급여는 약 172만 3천원임. 직종별로 월급-시급 형태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에 편차가 있음.
 - (교육·훈련) 돌봄 교직원/인력은 국가자격기준 등 자격·양성과정에 다양한 층위를 가지며, 인력관리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이질적인 특성을 함께 보임.



• 돌봄의 사회적 가치 및 성 불평등 현황

- 돌봄인력에게 적정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 평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6/5점 평균).
- 돌봄인력의 경우, 남성교사와 함께 일 한 경험이 있다 11.1%, 돌봄인력에 양성 참여의 노력이 필요하다 80%로 나타남.
- 가정 내 돌봄에서 모의 돌봄시간이 부에 비해 약 3배 많으며, 부-모 간 이상적인 자녀돌봄 분담은 약 2:3로 응답함.
- 가정 내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음 (2.8/5점 평균).
-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교육·보육·돌봄을 제공하는 남성교사/인력을 경험한 비율이 약 20% 이상으로 나타남.

• 성인지 관점의 돌봄 분석(Gender Analysis)

-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돌봄인력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보다 계약직의 경우,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근로여건, 경력보상체계, 복리후생 및 수당, 직장에서 직무지원이 잘 이루어질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에서의 가치 인정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과 가정 내 돌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버지의 성역할가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간 양육 분담이 잘 이루어짐. 부모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질수록, 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수행이 많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의 성평등 가치관과 양육참여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에도 유의한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존중, 남녀 성역할 인식, 그리고 가정 안·밖과 돌봄의 공식-비공식 영역에서의 남녀 양성평등 참여, 돌봄의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제반 근로여건이 돌봄인력의 직무만족도와 가정 내 돌봄의 질, 일·가정 양립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과 아동대상 교육·보육·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 돌봄인력 양성-진입-근속에 관한 성별분리통계 및 지역단위 양성친화지표 공표와 이에 근거한 지원체계 보강
-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인정의 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및 체험학습 기회 확대
- 부의 돌봄참여를 독려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시간-비용-현금 지원 연계 강화(부모 공동사용 의무화 및 플러스 설계 강화)
- 돌봄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관련 교육·보육·돌봄에의 통합적 접근과 포괄적 성인지 관점의 적용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사회갈등 진단과 대응 방안

양미선, 최은영, 김강민, 한재희, 김영민, 신하은

| 배경 및 목적 |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도 그간 사회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나타난 사회갈등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지만,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갈등을 진단하여 향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방법 |

- 사회갈등 개념, 갈등조정제도, 국민 참여제도 등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정리함.
- 전문가 및 부모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유아 교육·보육 분야 이슈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협의회,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함.

| 연구결과 |

- 2011년까지는 유치원과 보육 모두 부문 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보육 관련 이슈 키워드를 포함한 부문이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 완만한 추세를 보임.
 - '유치원' 부문 데이터는 2016년까지 주요 이슈 관련 기사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 무상보육 관련 이슈는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2010년에 점차 증가하였고, 2012년을 기점으로 관련 뉴스가 1,157건으로 늘어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성분석한 결과, 긍정 51%, 부정 48%, 중립 1%로 긍정과 부정 비율 비등함.
-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사 건수는 2016년 5,034건으로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이 작성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성분석 결과, 부정 54%, 긍정 45%로 부정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유치원 3법 관련 기사는 2018년 1,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1,094건, 2020년 248건의 관련 기사가 집계됨.
 -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감성 분석 결과, 긍정 58%, 부정 41%, 중립 1%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사립유치원 파업 관련 뉴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기사가 올라옴.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정분석 결과 긍정 57%, 부정 41%로 긍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 제언 |

-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 긍정적·부정적인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현상을 보일 때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구(장치)를 마련함.
- 정부는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교류 및 토론, 협상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화가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법 재정비함.
-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분야에서 발생한 사회갈등의 조정 및 해결과정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화함.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확보하고 강화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명실상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함.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구

최은영, 도남희, 김은정, 장혜진, 김민주, 이솔미

| 배경 및 목적 |

-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데 교육이 중요한 수단임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이 영유아기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옴.
- 그러나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 |

- 문헌 분석
- 개정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 심층 면담
- 설문 조사
- 국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콜로키움 개최

| 연구결과 |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
 -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다양한 실천적 측면의 연구들이 필요함.
-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된 반면,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과 실행

- 표준보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된 목표는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인권/정의/평화였으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목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아종식,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로 나타남.
- 2019 개정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이 가장 잘 반영된 목표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권/정의/평화, 성평등 순이었고,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목표는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함.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55.9%로 가장 높았고, 활용하는 자료로는 시청각 자료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의 적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10.7%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
-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N=702)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26.8%,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18.7%,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18.7%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 영유아 교원의 ESD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생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시행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의 지속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 연구

박진아, 최효미, 최윤경B

| 배경 및 목적 |

-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와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의 전면적이 무상보육 정책이 도입된 이후 어린이집 실수요자의 12시간 이용 시간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였고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체계 개편을 다각도로 모색함.
-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2020년 도입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7. 3).
-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무상보육 이후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어린이집 비용의 지원방식과 분담체계 개편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결과 |

-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 어린이집은 2000년 1만 9,276개소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전면적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 4만 4,770개 소로 최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전국보육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은 매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7시간~8시간 사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0세는 2012년도 7시간 57분에서 2015년 8시간 30분, 2018년 9시간 3분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 등원시간은 9시01분~9시30분이 32.1%, 8시31분~9시 24.1%순 이었으며, 하원시간은 15시01분~16분이 32.7%, 16시01분~16시30분이 14.7%, 16시31분~17시가 14.7% 순으로 나타남. 평균 이용시간은 7.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63.1%가 이용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이용시간은 8.2시간으로 나타남.
 - 총 비용은 89,934원, 추가보육료는 14,789원, 필요경비 26,108원, 시간연장비용은 13,020원, 특별활동 45,653원으로 나타남. 이용 비용 부담 여부는 평균 2.6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별로 부담 안된다는 정도로 나타남.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여부에 대해서 84.1%가 이용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함. 25.2%는 보육료 지원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으며, 25.2%는 월 1회 이하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80.4%의 응답자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찬성하며, 근거로는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장시간 보육 감소로 서비스 질 제고, 16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 크지 않음 순으로 나타남. 반대 사유로는 돌봄 공백 발생 우려, 연장보육에 남는 아이가 적어져서 아이가 싫어할까봐 순으로 나타남.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이용시간이 단축된 경우가 14.4%, 연장되었다는 경우가 15.5%, 변화없는 경우가 70.1%로 나타남.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1시간 겹쳐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58.3%는 타당하다고 응답함.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29.9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함.
- 개편 이후 질적 수준 변화에 대해 79.1%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편 이후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8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및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그동안 12시간 운영시간 안에서 모호했던 이용시간의 구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함.
 -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지원과 분담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함.
- 어린이집 비용 지원 모형 및 비용 추정
 - 비용지원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2020년 시작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방식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요소로 교사를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누리과정과 오후 방과 후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유치원의 운영 체계를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고 비용을 산출함.
-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 현재의 지원 방식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취업여부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방식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보육지원체계에서의 8시간 기본보육시간을 확보해주고 이후 연장보육 이용은 자격 조건이 아닌 이용 시간으로 전환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같은 방식의 보육과정 운영 체계로 개편하여 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따른 분담 방식을 제안함.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박원순, 김은영, 박은영

| 배경 및 목적 |

-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필요를 파악하고 조부모, 예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자 함.
- 단기적인 정책 요구도 뿐만 아니라 반복된 정기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인 추세 분석으로 행복한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 여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문헌분석을 통해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에 위한 관련 기본계획, 업무보고 자료,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분석함.
- 대국민 여론조사
 -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3,000명을 비례표집함.
 - 조사방법은 온라인 패널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고,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함.
- 수시 여론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학습 환경 및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과 동일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실행하여 시기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하였음.

| 연구결과 |

- 2020 정기 여론조사
 - 남성, 고연령 응답자, 소도시 거주자, 기혼, 자녀가 있는 부모, 소득이 낮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부모됨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
 -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양육의 부담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모됨이나 양육관에 머물러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육 및 가사를 부담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
 - 미혼의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국민에 비하여 부모됨을 덜 행복하게 인식하고 있고, 인생의 목표로서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더 깊이 공감함.
 - 미혼 국민들은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국민에 비하여 부모됨 혹은 육아에 대하여 보다 큰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결혼 호감도가 현저하게 낮음.



- 소득과 학력,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변인은 겹쳐서 유사한 패턴으로 읽히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우리 사회가 교육-직업-소득이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2017-2020 정기 여론조사 추이
 -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비중이 늘어가고 있음.
 -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꾸준히 부모가 우선이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갈수록 그 외의 의견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늘어가고 있음.
 -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갈수록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음. 코로나 대응 비용지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결과로 파악됨.
- 영유아부모 수시 여론조사
 - 전반적으로 바깥놀이 시간이 늘어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정 내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음.
 - 부모의 우려와 달리 영유아 자녀의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시간은 2차에 걸쳐 줄어들었음.
 -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학습용 앱을 더 사용하였음.
 - 미국의 조사와 비교할 때 한국 영유아의 가정 내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의 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정책 제언 |

-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
 - 코로나19으로 인한 가정 내 양육의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가정 내 활동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양한 관점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어서 부모의 양육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이 담당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많고, 정책적 요구도 양성평등적 육아 분담이 높음.
- 비용지원 정책의 확대
 - 코로나19 대응 양육수당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음.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I): 2019~2020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김근진, 박창현, 김희수

| 배경 및 목적 |

- 2020년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 3년이 경과하는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실행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임.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수행하는 연속과제의 3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2019년에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 분석하고 미비점 파악 및 향후 개선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20년 육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점 현안을 심층 분석하여 당면한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연구방법 |

- 문헌분석: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다룬 국내외 연구와 정부보고서를 고찰
- 설문조사: 육아정책의 성과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육아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 100명,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1,731명, 유치원 원장 및 교사 215명,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면담조사: 육아정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해 부모 및 기관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교사,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
- 계량분석: 지자체 출산지원금,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 등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함.

| 연구결과 |

- 저출산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수당 도입 및 연령 확대'이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비율이 가장 높은 과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고, 긍정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취학 전 출발전 평등'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설문조사 결과, 달성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정책은 '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시간 확대'이고, 달성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로 나타남.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면담 결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연장보육 시작 시간과 연장반 교사 채용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였음.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면담 결과,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현장에서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 초등돌봄전담사 면담 결과, 온종일 돌봄 체계와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책 추진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하였고,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시 민간위탁 확대를 우려하였음.
- 아동 정책에서 부모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성과를 보인 과제는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이고 가장 성과가 낮은 과제는 '부모의 육아 행복감'으로 나타남.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임.
- 계량분석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 정책은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참여 및 근로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제언 |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 예산의 GDP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수준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육아휴직 등 시간지원 제도 개선: 시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초등돌봄 정책의 개선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와 초등돌봄교실의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근거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초등돌봄교실의 관리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속조치: 연장보육료 지원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연장보육 시간 조정이 요구됨.
-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후속조치: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개념 명확화,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충분한 교육자료 제공이 필요함.
-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 자격·양성체계에서의 격차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 아동학대 대응 정책 예산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있음. 기금이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안정적인 아동학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I. 연구소 소개
- II. 2020년도 주요연구
- III. 2020년도 주요활동
- IV. 2021년도 추진계획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최효미, 이정원, 박은정, 김태우

| 배경 및 목적 |

- 5개년 연속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임.
- 심층분석으로 초등 전환기 육아서비스 이용행태를 변화를 살펴보고, 시의성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가구의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긴급돌봄 및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고찰을 함께 진행함.

| 연구방법 |

- ‘KICCE 소비실태조사’는 2차년도 자료 구축이 완료된 표본(2020년 초등2학년이 되는 2012년생 이하 표본)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신규 표본을 구축함.
-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 문헌연구, 부모 대상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함.

| 연구결과 |

-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결과
 - 가구 기준 3차년도 전체 표본 수는 2,156가구(아동 총 3,278명)이며, 추적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1,634가구(75.8%)였고, 표본 이탈로 인해 대체 조사한 가구가 268가구, 3차년도에 신규 조사한 가구가 254가구임.
- 2020년 육아 가구 양육비용 실태
 - 2020년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6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만 2천원가량 감소함.
 - 2020년 영유아 양육비용은 8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만 1천원 감소하여, 총 양육비용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큼.
 - 코로나19 전후 가구 지출에서 지출이 증가한 비목은 식비(71.9%), 지출이 감소한 비목은 1순위 응답 기준 여가 문화생활비가 34.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보육비(22.9%)임.
- 영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모든 연령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본보육시간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가 낮은 편임.
 - 전년과 비교하여 문화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 전체적인 시간제 사교육 이용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단, 비방문 교구활동교육,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 통신교육 이용이 전반적으로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됨.



- 유아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유아의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률은 전년도 2%이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에서는 10%내외로 크게 증가함.
 - 이전년도 조사에 비해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비방문 학습지, 온라인통신교육, 비방문형 고구활동교육 등은 약간 증가함.
- 초등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비율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 학교는 4.5%,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6%, 시간제 사교육 유형 중 단시간 학원 이용비중이 가장 높으나,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임.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또는 휴교하였을 때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8.6% 순임(1+2+3순위 응답 기준).
- 초등 전환기 자녀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
 - 유아기(만6세) 대비 초등1학년(만7세) 양육비용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되 최상위 밀도가 다소 낮아졌음.
 - 초등1학년 때는 시간제 사교육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분석 대상의 83.5%가 시간제 사교육을 이용함.
 - 초등 전환기 시간제 사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사교육 이용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시간제 사교육 이용시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정책 제언 |

-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긴급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확산, 가정 내 양육을 위한 놀이활동 자료 보급 및 부모 정서 지원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 확산 및 정착, 가족돌봄휴직/휴가 지원 범위 확대
- 저소득 육아 가구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수당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아동수당 추가 지원 및 육아지원 강화
- 원활한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연장보육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연장보육료 지원 체계 정비,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및 입소대기시스템 연계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학습 연계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검토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

박진아, 김동훈, 김태우

| 배경 및 목적 |

- 정부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물가의 상승세로 인해 영유아 가구에서는 여전히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출산율 저하 요인으로 선택함. 따라서 육아물가의 변화는 저출산과 교육·보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요구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정책효과 분석의 한 방법으로 정부의 보편적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와 시장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육아물가지수' 산출 연구를 진행함.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의 3차년도 연구이자 2012년 이후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8차년도 연구로, 영유아 가구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과 영유아 가구의 체감물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육아물가 시장조사,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육아 소비 빅데이터 분석

| 연구결과 |

- 소비자물가지수의 육아품목 물가지수 산출 결과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연간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연도인 2015년 이후 매년 1~2%의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이후 최저치인 전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육아품목들의 육아물가지수(Ⅰ)를 산출한 결과, 2020년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0.4% 하락하는 동안 육아물가지수(Ⅰ)는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 결과
 - CPI 방식으로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Ⅱ)는 2018년 100을 기준으로 2020년 106.45이며 전년 대비 3.79% 상승하였고, 베스트 상품군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52%로 CPI 방식의 지수보다는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가격분포의 상품군, 유통채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고가 상품군과, 베스트 상품군, 저가 상품군의 물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KICCE 육아물가지수(Ⅲ-1)은 전년대비 3.15% 하락함.
- 영유아 부모 체감 물가 동향
 - 영유아 가구는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재 가격을 비싸다고 체감하는 부정적 응답이 싸다고 인식하는 긍정적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 또한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거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대비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가구의 소비자심리지수 산출 결과, 향후 가계수입 전망과 생활형편 전망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게 나타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경기수준을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지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
- 영유아 가구의 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교육업종에서 결제된 비중은 평균 34% 수준이며 유통/쇼핑 업종은 33.1%로 분석되었고 전체 결제금액 중 교육과 유통/쇼핑 부분의 소비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의 업종은 음식업종 9.2%, 의료 6.4%, 생활비 5.2% 순으로 집계됨.
 - 2019년과 2020년 동일 시점을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결제금액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총 결제금액은 코로나19가 한참 심했던 3월에 8.6%,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한 8월의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과 많은 대면이 필요한 문화/취미 업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소비가 감소하였는데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숙박/레저 업종에서도 1~3월과 6~7월 동안 전년 대비 감소함. 반면 급속한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여 이동이 완화된 4~5월에는 숙박/레저 업종의 소비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 소비 업종 간의 증감이 차이를 보임.

| 정책 제언 |

- 본 연구의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하위 지수로 편입되어 지속성을 가지고 산출되어야 함을 제안함.
 - 특히 서비스 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고 현금지원이 확대된다면 정책 지원으로의 수당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주 소비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와 이들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물가지수 산출은 지속되어야 함.
- 서비스 지원정책에서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육아지원설계 전체에서는 기관 중심의 설계에서 영유아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이들 상품의 소비가 가구의 양육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가정 내 양육지원 설계에 구성 요소로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
 - 2012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비용지원정책은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이후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도 효과를 보였고 실제 영유아 가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지원정책 만족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함께 서비스 만족도도 증가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돌봄쿠폰 지급 이후 영유아 가구에서 완구와 서적/문구 위주로 소비가 집중된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 외에 주요 소비 품목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육아지원설계의 요소로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III): 유아관찰앱 개발 및 적용

배운진, 강은진, 엄지원

| 배경 및 목적 |

-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연속과제 중 3차년도 연구임.
- 본 연구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 이후 운영 현황 및 변화 등을 조사하여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유아관찰·기록·평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교사의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님.

| 연구방법 |

- 문헌 연구: 관련 문헌,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아관찰도구 전산화 사례 분석
- 조사 연구
 -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233명 대상 설문조사
 - 유아관찰앱 개발에 대한 의견조사
- 사례 연구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 대상 유아관찰앱 시범적용
 - KICCE 유아관찰척도의 관찰사례 추가 개발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연구결과 |

- 개정 누리과정 시행 첫 해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운영 현황 및 교사와 유아의 변화
 - 응답자의 67.4% 이상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경력이 낮은 교사들이 고경력 교사에 비해 어려움을 더 인식하였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어린이집은 '준비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유아 놀이·활동'이며, 주된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기록'임.
 -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 전에는 '교육·보육과정 계획 및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개정 후에는 '놀이·활동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음.
 - 교사들은 유아의 경우 놀이 몰입 정도 등 놀이에서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음.



- 교사와 유아의 놀이성 및 유아의 특성
 - 교사와 유아의 놀이성 하위영역 점수 간 대부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음.
 - KICCE 유아관찰척도 평정 결과,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의미 있는 점수 차이가 나타났음.
- 유아관찰업 개발 및 시범적용
 - 메뉴 구성: 달력, 출석부, 관찰기록, 체크리스트, 유아관리, 교사관리, 설정
 - 주요 기능: 모바일앱과 PC 연동, 유아별 기록 분류와 저장, PC에서 관찰기록 내보내기(저장 및 인쇄)

| 정책 제언 |

- 누리과정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
 - 누리과정 운영 시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교사연구나 배움을 위한 시간 지원
 - 교사의 전 역할에 대한 균형 있는 수행 및 놀이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유아의 특수한 요구 혹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지원
 - 교사 지원·관리체계에 개정 누리과정 반영 및 기관유형별 제도 개선
- 유아관찰업 활용 방안
 - 앱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누리과정 운영 평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등의 앱 기능 개선
 - 앱 활용 대상 확대 및 앱 활용 목적에 대한 공유
- 후속 과제를 위한 제안
 - 유아 놀이성 척도 개발 및
 - 교사 역량에 관한 연구
 -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혹은 유아의 변화를 다루는 장기적인 연구
 - 개정 누리과정의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연구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이정림, 구자연, 최윤경, 정정호

| 배경 및 목적 |

-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에 관한 2차년도 연구로서, 빈곤가정 내에서 빈곤가정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해서 가정유형별에 따른 양육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빈곤가구 비율 및 영유아 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조기투자의 효과성 및 빈곤가구 유형별 양육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한부모 단체/미혼모 단체/지역 복지관 등 관련자와의 간담회, 관련 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 회 개최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일반 빈곤가정 150가구, 한부모 빈곤가정 100가구, 미혼모(부) 빈곤가정 100가구, 조손 빈곤가정 24가구, 총 374가구 대상의 설문조사
-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빈곤 부모 3명, 한부모 7명, 미혼모 3명,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부모 2명으로 총 15명 대상의 심층면담

| 연구결과 |

-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자녀 양육환경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에 비해 자녀양육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의 양육자는 양육스트레스와 우울함의 정도가 일반 빈곤가정 양육자에 비해 높았으며, 긴급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 및 자녀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음.
-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의 건강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영유아 자녀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손가정 영유아 손자녀의 영유아 건강검진 비율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율이 다른 빈곤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빈곤가정 영유아의 문화생활
 - 빈곤가정 영유아들의 문화생활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며,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 영유아의 영상 시청 시간이 양부모 빈곤가정보다 많았음.

| 정책 제언 |

- 식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거나 식당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영유아 대상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의 영유아 양육을 위한 수당 적정성 제고
- 빈곤가정의 영유아가 미디어 등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책임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연계 및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 조기드림스타트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일반 빈곤가정 지원 방안: 일반 빈곤가정의 사례관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방안: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조손가정 지원 방안: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업무 명확화
-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기존체계의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공무원, 드림스타트 등)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강은진, 권미경, 김보미, 황명화, 김희교

| 배경 및 목적 |

- 다양한 요구를 지닌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지원정책들이 어떻게 정책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 사회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를 기초로 신규 조성지역, 도시재생지역, 도농 복합지역으로 구분하여 시범 진단 및 적용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 시범지역 선정 및 지표 개선: 1차년도에 개발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보완한 후, 지역별 출산율, 영유아인구 수, 시 정책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광명시, 공주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 지표 적용을 통한 진단: 수정된 계량지표를 통해 시범적용 지역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유형별 개선 및 필요 정책을 도출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시범적용 지역별 주민들의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총 1,0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체감형 육아친화 환경 체크리스트와 정책 발굴을 위한 주민 워크숍을 개최

| 연구결과 |

- 광명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아동권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다른 지역에 비해 육아인프라의 공급수준이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지역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지역 내 육아친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육아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공간 마련이 필요함.
 - 도시재생사업 시, 부모와 자녀와 함께 참여해 육아친화적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공주시는 지역에 따라 육아인프라 측면에서 격차가 큰데, 신규 단지가 조성된 월송동/신월동에서는 보다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되고 있었음.
 - 읍·면지역에는 기본적 육아친화 인프라 공급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돌봄 및 주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화 공간 마련이 제안됨.



- 공주시는 작은도서관, 아동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을 기존 활용해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남양주시가 육아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육아친화마을로서의 철학과 가치 형성을 위해서 아이 기르는 가족을 확대하며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육아인프라 측면에서의 재배치와 기능통합을 제안함.
 - 부모들의 자조모임, 육아 멘토-멘티 시스템 등 인적네트워크의 형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책 제언 |

- 지역별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향: 신도시형, 도시재생형,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제안
- 육아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기존 사업 연계 방안: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연계, 국토교통부 '아이 키우기 좋은 3기 신도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 농촌 유토피아 사업과 연계 방안 제안
- 육아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육아친화마을 조성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육아친화분과 포함,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육아친화마을 3차년도 연구 추진을 위한 계획: 시범운영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인증과정 구성, 아동참여 및 행정서비스 지표 보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

| 배경 및 목적 |

- 2019년 7월 2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동시에 고시하였고, 2020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
- 2020년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확대' 방향에 따라 개정된 누리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유아의 놀이와 학습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착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실태 파악, 현장 교원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적용과정 및 학부모의 인식 모니터링, 이를 기초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사례조사: 유치원 4개원과 어린이집 4개소(원장 총 8명, 교사 총 20명)를 대상으로 2회 실시
- 설문조사
 - 전달체계 담당관 대상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사)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8명
 -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500개 기관씩 총 1,000개 기관의 원장(감)과 교사, 총 2,000명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4, 5세 학부모 각 500명씩 총 1,000명
- 정책워크숍 및 정책토론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결과 |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사업은 시·도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별로 예산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다르지만 대부분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멘토링, 연수, 시범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흥미 및 놀이를 중심에 놓고 시간과 공간, 자료, 계획안 양식, 주제선정 및 유아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주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간과 교사 대 유아 비율, 인력지원, 교원양성 및 연수에 있어 개별 기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음.
-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학부모에게 설명한 비율은 90% 정도이며, 설명 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책자를 활용한 경우가 70% 이상임. 52%의 부모는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변화 내용은 자녀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응답 48%,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응답 41%,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남.
 - 원장 59%와 교사 60%는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기관의 변화 내용은 원장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의 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높았음.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1순위는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정책 제언 |

- 기본적인 교육과정 질 보장, 현장의 다양성 추구,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 자발성 제고, 유아의 참여 확대,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 신장, 기관과 가정의 연계와 협동,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는 6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함.
- 법과 제도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 강화,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기관평가 개선,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관련 법령 개정,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을 제안함.
- 행정 측면에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방법의 개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개발 자료 공유, 현장 사례 공유의 장 활성화, 초중등 환경 개선 사업 및 생활 SOC 사업 연계, 원격교육 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행을 제안함.
- 재정 측면에서 교원의 전문성 제고,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의 4가지 정책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계함.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III) : 컨설팅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문무경, 이재희, 박은정, 정유나, Maki Hayashikawa, Kristy Bang, Cliff Meyers, Evelyn Santiago

| 배경 및 목적 |

- 본 연구는 3개년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3개 협력국(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피지) 우선적 개발협력 수요인 ECCE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국의 실행계획 보완 및 이행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임, 또한 향후 관련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국가별 현황 업데이트 및 개발협력 성과분석 문헌 검토
- 국내·외 연구협의체의 지속적 운영(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 및 ARNEC과 콘소시엄)
- 3개 협력국 개발협력 성과분석틀 마련: 투입물,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5단계로 구성된 변화이론 모형 활용
- 협동연구기관과의 온라인 협의회 개최
- 제3차 육아정책 개발협력 정책세미나 개최(2020. 12. 21, 온라인) 등
 -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3개 협력국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고, 해외출장의 어려움으로 이메일, 텔레그램, 정례 및 수시 화상회의를 최대한 활용

| 연구결과 |

- 국가별 컨설팅 실행과정 모니터링
 - 우즈베키스탄: 유치원 평가지표 검토 및 2020년 시범평가사업 추진, 시범평가(Piloting) 대상 기관표집의 대표성, 시범평가기관 자체보고서 작성, 평가자를 위한 지침 항목, 평가자 연수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제공
 - 베트남: ARNEC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베트남국립교육과학원(VNIES)과 협의를 통하여 1)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표의 기준 및 평가 근거자료와 방법 구체화, 2) 지역격차 완화를 위하여 중앙에서 지역수준의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중앙과 지역의 연계, 지역의 평가자 교육(TOT)에 대하여 컨설팅 제공
 - 피지: 1) ECCE 고유의 평가지표 선정 및 기존의 FEMIS (초중등) 시스템에 통합, 2) 지역별 평가자 연수 실시, 3) 평가자 연수 동영상 제작을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
- 컨설팅 개발협력 컨설팅 성과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300개 유치원에 대한 시범평가 자체가 2020년 10월로 지연되었으나, 시범지역 및 기관 표집 지원, 연수 및 안내 매뉴얼 개발과 보급에 대한 정보 제공



- 베트남: 현장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지표 준거(채점 기준) 개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평가자 및 유아교사 연수 실시
- 피지: FEMIS 통합안 개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완료단계이며, 현지전문가 워크숍(2회) 및 피지 전 지역의 총 56인의 평가자 교육(TOT: Training of Trainers) 실시, 영상교육자료 제작과 배포 등

| 결론 및 제언 |

- 결론
 - 본 3개년 연구의 성과: 협력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 현황과 정책 정보의 축적, 서비스 질 모니터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지표 보완, 평가자교육 추진 지원, 협력국 담당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네트워킹 등
-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의 선행 필요
 -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서비스의 질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기본시설 인프라 기준 설정 및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필요
 - 지역단위 서비스 질 평가자 교육과 유아교원 관련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단 운영 필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V): 평가연계 사후컨설팅 시범사업

최윤경, 박원순, 조숙인, 이혜민, 이원선, 이혜진, 김지은, 윤보라, 김미정, 최효정, 정혜원, 전해자, 홍유림, 홍미라, 옥향희

| 배경 및 목적 |

-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평가인증 사업이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평가제로 변화함. 의무평가제 도입에 따른 후속 관리체계로서 새로운 차원의 평가연계 컨설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어린이집 대상 사후지원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CARE 컨설팅 모형」은 국가수준의 평가연계 컨설팅(사후방문지원)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
 - 어린이집 구성원의 조직진단과 의제설정을 통해 행동변화의 과정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관에 대한 경영마인드(원장 리더십)와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기관을 경영하는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적용 하였음.
- 2020년 과제는 지난 4년간 진행된 연속과제(2016~2019)의 마지막 5년차 연구로, CARE 컨설팅이 의무평가제의 사후 질 관리체계로 어떻게 연결 및 작동하는가를 볼 수 있는 제도 도입 단계의 중요한 실증 자료이자 마무리 작업임.
 - 어린이집 평가 결과 저성과(C, D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CARE 컨설팅 모형을 적용하고 컨설팅 과정/절차의 실효성을 점검함. 한국보육진흥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경기북부, 충남), 전문가그룹과 협력하여 CARE 컨설팅을 실시

| 연구방법 |

- 평가/컨설팅 제도 관련 문헌연구
- 어린이집 평가인증/평가 결과 자료 분석
- 1~4차년도 CARE 컨설팅 종합분석, 5차년도 평가연계 CARE 컨설팅 실시 및 성과분석
- 컨설턴트교육, 컨설팅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 연구결과 |

- 어린이집 평가 결과(2019. 11~2020. 5, N=5,805), A등급 57.1%, B등급 31.8%, C등급 8.4%, D등급 2.7%로, 인증제에 비해 A등급의 비율은 감소하고 B등급 증가, C등급 감소, D등급 증가로 나타남.
- 1~4차년도 평가연계 CARE 컨설팅 시범적용 결과(N=333), 컨설팅 의제 선정이 '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 전문성',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순으로 이루어짐.



- 조직진단 결과 사전-사후 점수 변화가 원장·원감 vs. 교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원장의 리더십 향상에 중점을 두는 컨설팅 모형으로, 교사보다 원장·원감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남. 핵심행동 성과에서는 원장/교사 모두 긍정적 변화를 보고함.
- 2020년 5차년도 연구에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 1~3기 결과 C,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4개 시·도의 5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소 평가연계 CARE 컨설팅을 수행함.
 - 평가 중심에서 상시지원 및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컨설팅 중심의 질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실제 컨설팅 운영을 통해 현장에 적용, 컨설팅 운영에 관한 어린이집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함.
 - 기관경영 관점의 조직진단과 조직문화 형성의 중요성, 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함.
 - 변화된 어린이집 평가 지표에 의하면, 4영역(교직원), 1영역(보육과정·상호작용)에 관한 컨설팅 의제 선정이 많았음.
 - 사전-사후 조직진단 결과, (1~4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장·원감의 CARE 조직진단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교사의 경우 컨설팅 적용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정책 제언 |

- CARE 컨설팅 운영의 핵심 요소(효과성, 자발성, 학습성)별 논의
- 본 사업 사후방문지원의 운영을 위한 제언
 - ‘교직원’ 리더십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모형의 개발과 확장 필요. 저성과기관 중심의 컨설팅 낙인 효과 방지
- 지역의 전문컨설턴트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컨설턴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
 - 컨설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체인력 파견과 평가/컨설팅 참여 이력 관리.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의 인센티브 전략 마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운영체계 마련
- 컨설팅 이행과정의 지역 및 기관유형별, 평가결과와 컨설팅의제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컨설팅 전문화와 후속지원 연계
- 지자체 지도점검과 평가 및 컨설팅, 교육·훈련과 각종 지원, 부모참여와 모니터링 등의 상시 질 관리,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경력관리가 연동하는 ‘순환적 질 관리 체계’로 발전을 제안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권미경, 김나영, 김아름, 최인화, 김영민, 신하은, 강민정, 이승현, 권소현

| 배경 및 목적 |

- 본 과제는 한국의 육아와 관련한 문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됨.
- 2차년도 연구에서는 부모의 주 생활터전인 직장에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긍정적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국내외 우수기업 사례조사, 부모대상 심층면담, 근로자 2,031명 대상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2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SBS 희망TV-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프로젝트 구성

| 연구결과 |

- 직장 내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 적정 근로시간의 설계가 관건임.
 -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장 내 육아문화 확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필수적 요소임.
- 사용 가능한 육아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수립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유연한 근무시간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직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인력구성, 사업장 위치 등 요소들이 상이하므로 보다 다양한 직장 관련 요소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육아문화의 현황 진단을 통해 대표되는 문제점은 다음으로 요약됨.
 - “제도는 있지만 그 사용은 쉽지 않다.”,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다.”, “직장 내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이는 상황이 많다.”,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된다.”



| 정책 제언 |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 육아휴직제도개선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도 도입
- 육아휴직 후 프로그램 개발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정부의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돌봄 기능 연계

시간지원 확대 방안

유연근무제도와 활용 안착

- 감염병 상황대처 등을 위한 관련 법적 토대 마련
- 유연근무제 운영 모범사례 발굴
-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 관련 중장기 계획 시 육아문화 조성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 중장기 계획에 육아문화 개선 포함

중소기업 경영진 대상 인식개선

- 중소기업경영진 대상 '육아문화포럼' 운영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 방안

근무환경 개선, '직장문화 혁신팀' 구성

- 직장에는 '직장문화 혁신팀'구성, 정부는 컨설팅 지원

직장문화 개선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범 부처에서 기존 홍보에 직장육아문화 개선을 주제로 반영

기업 '육아문화 진단' 도구 개발

- 육아문화 진단도구 개발 및 현장 배포

워킹 대디 워킹 맘 지원센터 운영

- 워킹 대디 워킹 맘 온라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 방안

기업주도형 육아비용 지원

- 기업에서 근로자 자녀 돌봄지원비 지원방안

중소기업 경영진 대상 인식개선

- 기업과 육아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 기업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기회 제공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II)

김은설, 배윤진, 김근진, 조혜주, 김혜진

| 배경 및 목적 |

- 2008년 출생 신생아 2,150명과 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조사하는 20년 장기 동일 패널 대상 연구임.
- 발달심리학자인 U.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G. Elder의 생애이론을 기초로 아동발달, 부모특성, 가족특성, 영유아기 교육·보육경험 및 학교 특성,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 성장, 양육, 발달을 둘러싼 광범위한 요소들을 조사함.
- 2020년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진학한 패널 아동과 그 가족,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발달과 변화를 조사하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역할과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13차년도 조사 진행: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패널 일반조사/부모조사/교사조사, 아동 및 부모 대상 심층조사), 아동 수행검사 실시
- 12차년도 자료 계량적 분석
- 가중치 추정 및 적용

| 연구결과 |

- 13차년도 사업 진행
 - 13차년도(2020년) 아동패널 실시 진행
 - 패널관리 업무 수행
 - 제11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12차년도 조사 결과 분석
 - 일상생활특성: 아동의 숙제나 학습시간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학습시간이 긴 것으로 나왔고, TV나 컴퓨터 등 미디어 이용과 게임 시간은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미취업모 가정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측정됨.
 - 신체 및 건강 특성: 패널 아동 전체의 약 43%가 안경 또는 시력보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장이나 외모 등에 만족하는 정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대체로 높았음.



- 인지 및 언어 발달 특성: 학교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여아들의 점수가 남아보다 높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와 학업 능력과 인식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외동아의 자아정체감 점수가 높은 것이 특이한 결과이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나타났음. 학교폭력에의 노출 경험을 보면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82%고, 18%는 연중 1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5%는 보다 심각한 정도로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임.
- 부모 특성: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특성에서 근소하게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결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부모의 직업 특성에서 어머니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가구 특성: 패널 가구 다수(86.6%)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이며, 평균 자녀 수는 2.22명이었음.
-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조부모/친인척의 경우 학기 중 4.51시간, 방학 중 6.3시간으로 가장 많았음.
- 학교특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 비용을 보면 학원이 36.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과외가 20.19만원으로 나타남.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은 4.42만원으로 이용 비용이 가장 낮았음.

| 정책 제언 |

- 초등학교 내 집단 폭력의 심각성 인지와 적극적 대응 필요
- 아동 성별에 따른 전문적 심리 건강 지원
- 초등 자녀 양육과 교육 활동에 대한 아버지 참여 활성화
-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 박원순, 최윤경, 안현미

| 배경 및 목적 |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으로 이루어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적 육아지원체계의 휴원·휴업·휴관은 시의적절하고 긴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보호해야 하는 개별 가정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돌봄공백의 발생, 가정에서의 교육·돌봄의 수행에 큰 부담을 경험하였음.
- 이 연구는 2020년 2월 전 세계적인 감염위험 팬데믹 하에서 아동에 대한 가정 내 양육(돌봄) 및 교육·보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방법 |

- 국내·외 육아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문헌연구
-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만 0~9세)를 둔 주 양육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3월말, 7월초 2차례 실시)
-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설문조사
- 부모/교직원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육아정책Brief/육아정책포럼 발간, 육아정책연구소 생태계포럼 발표

| 연구결과 |

- 국내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 긴급돌봄 중심의 휴원·휴업 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응지침 배포(I~V-1판)와 교육부의 유치원 학사운영,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확대를 살펴보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아이돌봄지원 확대, 돌봄쿠폰 지급에 대해 고찰함.
- 자녀양육가구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가족관계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자녀양육·돌봄 현황 및 서비스 이용 변화
 - 휴원/휴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1차조사 36.2%, 2차조사 37.5%로 일정비율을 보임.
 - 가구소득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 특별재난지역, 맞벌이가구와 취약가구, 초등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좀 더 많았음.



- 팬데믹 초기 3월말 시점, 코로나19 전-후로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다 59.0%, 없었다 41.0%로 나타남.
 - 가정 내 양육을 한다(7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 24.0%, 다니던 기관 이용 지속 16.8%,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 4.8%,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 2.7%로 나타남.
 -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부모 직접돌봄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기관에서의 긴급돌봄 이용이 주요 양육지원체계로 작동함에 따라 가정 내 자녀돌봄에 대한 역할 수행과 양육·교육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영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긴급돌봄 이용이 초등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 팬데믹 기간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는 재택근무와 가족돌봄휴가, 긴급돌봄 이용으로 나타남.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 작동하는 주요 육아지원체계에 대해 실행력(이용가능성)과 지원·제도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휴원휴업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원아 입학 취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입학 취소에 대한 응답률(45.8%)이 유치원(27.6%)보다 높음.

| 정책 제언 |

- 재난상황에 대비한 육아분야 온-오프라인 「Blended Care System」 도입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하에서의 「일상적인 육아지원체계」와 「재난상황의 긴급 육아지원체계」로 재구조화가 요구됨.
-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 육아지원 및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간 연계/협업이 가동되는 「지역사회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 체계(가칭)」의 도입
 - 감염/재난 상황에서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돌봄교실의 역할 확장과 연계 강화
 - 교육보육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육아지원체계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함.
 - 가정 내 양육 아동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가구와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필요시 가정방문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포괄적 육아지원서비스를 운영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조숙인, 송하나, 김연수, 김주련, 김문정

| 배경 및 목적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휴원이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증가함. 재난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영유아의 심리 적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본 연구는 재난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여 영유아 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개발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개발

| 연구결과 |

- 영유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재난 극복 심리방역 시리즈
 - 한국발달심리학회와 공동으로 2020년 4월 13일(월)부터 5월 4일(월)에 걸쳐 일주일에 한편씩 다른 주제로 제작함.
 - 1차: 내 아이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2020년 4월 13일 배포)
 - 2차: 엄마, 아빠의 재난 스트레스 다루기: 자신부터 돌보세요. (2020년 4월 20일 배포)
 - 3차: 재난 속 부모 자녀 분리 상황 다루기 (2020년 4월 27일 배포)
 - 4차: 재난 후 준비하기 (2020년 5월 4일 배포)
-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 아동심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매뉴얼을 개발함.
 -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

장	제목	내용
1	감염병 재난이란?	감염병 재난과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2	감염병 재난은 왜 스트레스일까요?	
3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알아보기	



4	영유아 부모와 교사를 위한 감염병 재난 기본 대응 방법	영유아와 영유아의 주 양육자인 부모와 교사가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영유아의 심리방역 지원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
5	영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하기	
6	영유아에게 감염병 재난 설명하기	
7	재난 후 영유아가족 적응 돕기	
8	사례를 통해 배우는 영유아 감염병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Q&A 형식으로 감염병 재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양육자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 제시
9	기타 재난 스트레스 대응 방법	자연재해, 대중교통 및 항공사고, 테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재난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감염병 재난과 다르게 다루어야 할 점 정리
10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음 도닥이기 활동	재난 상황에서 영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4가지 활동 소개

| 정책 제언 |

- 가정 및 교육·보육 현장 활용 방안
 - 가정: 심리방역 시리즈와 매뉴얼을 통해 영유아 자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방안에 대해 학습
 - 기관: 심리방역 시리즈를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 심리방역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 구체적인 영유아 심리 지원 방안을 전달, 심리방역 매뉴얼을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을 돕고,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 재확산에 대응하는 기준을 제시
 - 재난 상황 속 영유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추후에 타 재난에 대비한 영유아 심리 지원 자료 제작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이윤진, 김희순, 김민주

| 배경 및 목적 |

- 2019년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우리사회 탈북민, 탈북 가정에 대한 관심을 소환하는 계기가 됨.
- 현행 탈북민 지원정책의 핵심은 취업에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는 탈북 가정이 많으며 남한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음.
 - 생계급여 수급률이 탈북민은 23.8%로, 일반국민 3.4%에 비해 월등히 높음(2018년 기준).
 - 남한거주기간 3~5년 미만 탈북민의 상용직 근로자는 70.3%이지만 5~10년 미만 집단은 53.6%로 감소함.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이와 반대로 3~5년 미만 집단은 11.3%, 5~10년 미만 집단은 14.8%로 증가함.
-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 관련 기초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간(연구기간 3개월)에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를 일부나마 규명하고 정착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 문헌분석
- 심층면담조사: 어린 유자녀를 둔 탈북 빈곤 한부모 6사례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3사례
- 정책세미나: 설현 국회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공동주관

| 연구결과 |

- 정부의 탈북민 지원정책: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현행 탈북민 지원정책 기본방향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임. 이 중 탈북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이 있음.
- 탈북 모자 사망사건 후 정부 대책
 - 23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자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취약세대 전수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위기가구 관리시스템 마련, 상담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함.



- 감사원의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감사 실시(2019년 9월 30일~2019년 10월 23일): 정착금 예산 감소, 저조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거주지 전입 후 취업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미제공, 미래행복통장 해지 및 출산 시 연장 미허가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미활용 및 정보 미공유 등 총 7건(주의 1건, 통보 6건)을 지적함.

• 탈북 여성의 취업 현황

- 임시직 근로 종사자 비율이 탈북 남성 8.5%, 탈북 여성 15.2%로 여성의 종사상 지위가 낮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음(여성 40.8%, 남성 27.0%).
- 탈북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유형은 서비스(26.3%), 단순 노무(24.8%), 판매(12.0%), 사무(10.1%) 임.
- 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3.8%)'을 가장 많이 꼽음. 남한 거주기간 5~10년 미만 집단이 45.5%로 육아 부담이 가장 큼.
- 건강상의 이유(질병, 장애, 우울증 등)로 취업뿐 아니라 취업교육도 받기 어려움.

• 탈북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 배우자(남편)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계급여와 양육수당 등에 의존해서 생활함.
- 하나센터,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분유, 기저귀, 언어·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지원받음.
- 자녀들도 허약, 장애, 언어 문제, 심리적 불안정 등 문제가 발견됨. 아이돌보미를 알고는 있으나 이용한 적은 없으며 어린이집을 다님. 개별육아보다는 집단육아를 선호함.

| 정책 제언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 명문화(제22조),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제3조의2),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제45조의2)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공공근로대상에 기초생활수급을 받더라도 탈북 빈곤 유자녀 여성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 복지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구자연, 정유나

| 배경 및 목적 |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배포된 지 5년이 지나 개선이 필요함.
- 법제화 이후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논란과 사안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사례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임.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운영방식에서 참고할 사안이 있는 5개 기관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
 - 기관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인, 학부모 2인이 심층면담에 참여
- 전문가 의견조사
 -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22인을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으로 선정
 - 2015년에 제작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의 영역별 개선사항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결과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설치구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현재의 지침 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 지자체 담당공무원,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출입로, 계단,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지역도 필수 설치 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집단은 현재의 지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생활 침해가 심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자체를 반대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 설치·운영 점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수정이 필요함.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열람 거부 관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집단은 사소한 일로 열람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현재 거부 사유는 어린이집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열람 거부 사유를 명백한 항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어린이집 원장 집단은 60일 녹화 용량의 부담이 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장 기간이 30일 정도로 축소되길 원한 반면 학부모 집단은 저장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함.
- 보칙
 -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유관기관 관계자 집단에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보육교직원 집단에서도 열람 요청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정책 제언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련 법령 추가 명시, 사각지대 최소화 강조 및 안내판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를 제안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 항목 간 연계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구성 변경, 설치·운영 점검 등 월 1회 이상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이상 상황과 조치계획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처리담당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관할 것을 제안함.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내용 및 개정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련 내용 추가를 제안함.
-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 야간보육이나 휴일보육 필수녹화로 명시 및 영상정보 사본 제공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관련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 보칙의 위탁 내용 문서화,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작성 및 서식 추가와 수정을 제안함.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김아름, 박은영

| 배경 및 목적 |

- 2019년 말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문제 및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 운영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음.
- 이 백서의 제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2020년 8월까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담당자들에게 상황에 따른 대응(시기별, 항목별)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정리하고,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 연구방법 |

- 문헌연구를 통해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코로나 3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며,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및 공문 등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체계상의 애로점과 개선사항에 관하여 분석함.

| 연구결과 |

- 보육 관련 코로나19 정책 및 정부대응 개관
 - 어린이집 내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대응방법(입구에서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등을 안내하였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의 경우 등원을 자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 휴원 및 긴급보육, 어린이집 지원방안, 보육교사 고용유지, 지자체별 휴원 등의 개별 조치를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조치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함.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기본적으로 정상 등원하며 단지 외부인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는 휴원을 권고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돌봄을 권고하되 긴급보육을 병행 실시하며, 3단계는 휴원명령이 원칙이며, 긴급보육의 경우에도 최소화하도록 함.



• 보육 관련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

-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발열체크, 증상 있는 경우 대상자의 휴원 및 업무 배제를 권고하였고, 어린이집에서의 소독 요령 안내, 마스크 착용 지침, 어린이집의 일시폐쇄 및 휴원과 관련하여 사유 및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보육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마련함.
- 또한 가정돌봄 시 출석을 특례로 인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대체교사의 지원기준 특례의 마련과 인건비 현원 기준 완화 및 휴원 시 유급휴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어린이집 지원방안을 마련함.
- 그 외에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운영과 어린이집 현장평가의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영유아 부모교육의 대응 안내,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함.

| 정책 제언 |

- 어린이집 대응에 있어서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빈번하게 관련 상황과 대응지침을 안내함으로써 발 빠르게 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고,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이룬 시점에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적극적인 휴원명령을 통해 어린이집 내에서의 확산을 저지하였음.
- 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폐쇄 명령은 영유아보육법에 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예방조치의 발동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휴원명령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긴급보육의 이용조건 및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현재 긴급보육이 시행된 상태에서도 실제 정상보육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에서의 문제(과밀화 등)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박은정, 박창현, 조혜주

| 배경 및 목적 |

-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다문화 아동 통합보육 여건 개선이 포함되었으나, 다문화 보육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다문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부족함.
- 다문화 보육 지원정책이 보육 현장의 실태와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다문화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보육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 2차 자료 분석: 다문화가족 및 영유아 관련 통계 데이터 분석
- 면담조사: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포커스 집단 면담(FGI), 다문화가족 부모 심층면담
- 설문조사: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보육 실태조사로 어린이집 조사(원장 응답) 280 사례, 보육교사 조사(담임교사 응답) 253사례 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원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부처와의 협의 진행

| 연구결과 |

-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실태
 - 다문화 영유아 재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일수록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다문화가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도 크게 나타남.
 - 재원 영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실시 비율이 높고 가정 어린이집에서 가장 낮았으며, 다문화 영유아 재원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 시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어린이집 내 다문화 교육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심화단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방법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농어촌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임.



• 다문화 인식 및 정책욕구

-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수효능감은 문화다양성 인식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다문화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은 다문화 보육 개선을 위해 정부가 투자해야할 가장 시급한 정책 영역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을 응답하였음.
- 원장 심층면담에서 다문화 보조교사 및 보조도우미 제도가 다문화 보육 부담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부모 심층면담에서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취학 전 진학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어린이집 군집별 정책욕구 심층 분석

-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 재원 다문화 영유아 연령, 지역 유형, 다문화 영유아의 한국어 구사 능력 요인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4개 군집 도출: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 정책 제언 |

- 다문화 보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다문화 보육 개선을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전국적인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실태 분석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문화 보육 대상 및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설계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다문화 영유아의 부모 지원 서비스 및 교육 확대
 - 보육교직원의 다문화 보육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개선
- 정책과제별 정책방안 및 추진전략을 제시함.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델 연구

양미선, 조용남, 윤유나

| 배경 및 목적 |

- 양성평등 시범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시범사업의 방향성 및 양성평등 시범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방법 |

- 양성평등 관련 법 및 제도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영유아 대상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수집·정리
- 양성평등 시범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와 어린이집 유아 대상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양성평등 시범어린이집 사업(21년)의 안착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어린이집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적용가능성 및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 및 보완
- 양성평등 및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연구결과 |

- 양성평등 시범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의 양성평등적 가치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구성함.
 - 보육교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며, 전국의 교사가 온오프라인 교육을 연 1회 계획
 - 부모 대상으로는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성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는 다음과 같이 개발함.
 - 교육대상은 원장 및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해당
 - 교육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설계
 - 교육내용은 살펴보기, 성평등 이해하기, 성평등 실천하기, 부록 총 5개 장 구성



- 어린이집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어린이집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3~5세 대상으로 4차시 개발
 -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3개 반에서 2주에 걸쳐 시범 실시

| 정책 제언 |

- 보육교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함.
- 유아 대상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함.
 -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양성평등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집 개발하여 보급
- 양성평등한 양육환경 및 부모의 양육태도로 영유아가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고 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모색함.
 - 양성평등 관련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
 - 양성평등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청 등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시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김동훈, 김은영

| 배경 및 목적 |

- 코로나19를 비롯한 향후 발생가능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유치원 수업일수나 교육시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함.

| 연구방법 |

- 문헌조사: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과 지침을 조사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OECD 발표 자료 등 검토
- 유치원알리미 데이터 분석: 정보공시 자료에 기반을 두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수업일수 등 비교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유아교육 전문가 30인(교수 12인, 현장교원 12인, 시·도교육청 장학관 6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수업(교육)일수 및 수업(교육)시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연구결과 |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 유치원 수업일수는 교육부 정책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전(2019년) 국공립유치원 연간수업일수는 184일, 사립유치원은 220일 수준이었음.
 -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이후(2020년) 국공립 유치원 연간수업일수는 160~161일, 사립유치원은 189일 수준으로, 2019년에 비해 29.2일이 감소하였고, 유치원 법정 연간수업일수인 180일 이상을 충족한 유치원은 33.2%, 180일 미만인 유치원은 66.8%였음.
-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일수, 수업시간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OECD 국가 유치원 교사는 평균적으로 연간 40주, 194일 동안 연간 993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공립유치원 교사가 연간 36주, 180일 이상 연간 762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의 교사당 1일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은 5.1시간, 우리나라는 4.3시간(공립유치원)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은 법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30.0%, '불필요하다'는 70.0%로 나타남(전문가 조사결과).
- 전문가들은 유치원 수업시간 규정과 관련하여, 바깥놀이를 포함한 자유놀이 시간과 대소집단 활동은 응답자 모두 수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시간들은 이견이 있었음.



- 수업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등하원지도 56.7%, 기본생활 76.7%, 점심시간 96.7%, 간식시간 93.3%, 낮잠 및 휴식시간 60.0%, 전이시간 80.0%로 나타남.
- 교사의 업무 시간 중 수업(교육) 시간과 수업(교육) 준비시간의 비중을 100을 기준으로 한 전문가 조사 결과, 평균 60:40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대체수업에 대한 수당지급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로 '대체교사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인 46.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대체교사 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1시간을 기준으로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1일 한도액은 7만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27.6%로 가장 많았음.

| 정책 제언 |

- 코로나19 감염병 등 다양한 여건이나 환경 하에서 유치원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함.
-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결정과정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함.
- 공·사립 유치원간 연간 수업일수의 큰 차이로 인해 유치원 수업일수 최대일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체교사에 대한 보결수당 지급기준(안)(1일 기준을 4시간 6만원 또는 5시간 7만 5천원 지급)을 제안함.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향후 과제

박창현, 김근진

| 배경 및 목적 |

- 연구진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 추진을 위해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유치원 선정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해 왔음. 국공립 다양화 매뉴얼(공영형, 협동조합형, 매입형 유치원) 개발 및 보급,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 현장 의견 수렴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지원해 왔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유치원 유형 다양화 정책(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설립,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지침서(매뉴얼)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추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연구방법 |

- 문헌 분석, 개별 또는 집단 심층 면담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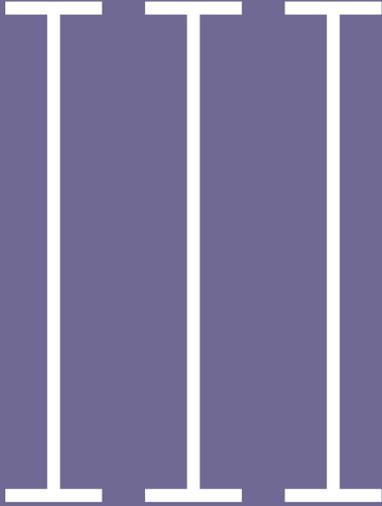
- 공영형 유치원 정책
 -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방향은 법인 전환의 어려움 해소, 개방이사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 조정, 공영형 유치원 선정 시 시설 조건 확인,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 등을 보다 고려해야할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공영형 유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사립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기초를 닦는 작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형 유치원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 유치원을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공공의 미래학교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이므로, 아직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부분 설립 초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초기 대출지원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초기 설립자들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이 필요함. 결국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설립인가 시 교육관과 재정보유 현황 등에 관한 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매입형 유치원 정책 방향 및 과제
 -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충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임. 단설유치원 수요가 있음에도 위치와 비용의 측면에서 불가능할 때,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시, 매입형 유치원의 취지와 목적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매입형 유치원의 목표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높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정책 제언 |

- 공영형 유치원
 -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허들을 낮추기, 교직원 노동자성 존중과 근무여건 개선, 유치원용 매뉴얼 개발 및 매뉴얼 서식의 예시 포함
 - 부서 협력 구조 개선, 정책 홍보 필요
- 협동조합형 유치원
 - 초기 설립 시 적극적 지원, 교육청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 당사자 연수 및 컨설팅 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살린 유치원 운영 모델 확산
 - 공공기관 임대와 관련하여 계약 연장에 관한 법 개정 필요
- 매입형 유치원
 -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에 대한 표준성, 공정성 강화, 유아, 교직원, 교재교구 승계 조치 및 리모델링은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 법·제도 마련(공립유치원 분원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 매입형 유치원 관련 정책 홍보 확대
 - 국공립유치원 운영의 질 개선, 관련 연구 및 성과 공유 관련, 중도 포기자 관련 제재 조항 강화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활동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C H I L D C A R E A N D E D U C A T I O N

- 주요 행사
- 주요 간행물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주요 학술행사이다. 2020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총 3차에 걸쳐 온라인 녹화중계로 진행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현정부의 육아정책 분석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1차	2020. 6. 30(화)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녹화중계 (YouTube)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육아정책 방향 I	(협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발표: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토론: 김경철 교수(한국교원대 유아교육과) 최윤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2020. 7. 23(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녹화중계 (YouTube)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수립 위한 육아정책 방향 II	(협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발표: 김형모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토론: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은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3차	2020. 11. 26(목)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온라인 녹화중계 (YouTube)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		발표: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백선정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토론: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기반을 통한 선도적 육아정책 개발과 선제적 이슈 발굴 등을 위해 유관 부처, 연구 기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 42개 기관으로 구성된 육아정책 생태계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기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연구소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제2차 포럼에서는 아이행복, 육아행복의 관점에서 본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20. 7. 1(수)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하일	코로나19 시대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네트 워크의 대응 방안	발표: 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보정책연구팀) 최윤경 단장(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 조숙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국제통일연구팀) 참석: 김광호 사무총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경철 회장(한국 유아교육학회), 황옥경 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김영 순 회장(한국사회복지학회), 손인숙 회장(한국모자보건 학회), 유구중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김홍상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옥 원장(경기도가족여성연구 원), 유희정 원장(한국보육진흥원), 우영혜 회장(한국국 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양진욱 회장(굿네이버스), 이제 훈 회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 년네트워크), 성연준 국장(SBS 사회공헌위원회)
제2차	2020. 11. 6(금) 명동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온라인생중계 (YouTube)	아이행복, 육아행복 시각으로 본 육아정책 현황과 과제	기조강연: 김태현 명예교수(한국교원대) 발표: 권미경 팀장(육아정책연구소 육아친화정책팀) 이정림 센터장(육아정책연구소 임산부 영유아지원센터) 토론: 유구중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선옥 회장(한국 아동복지학회), 최병민 부회장(한국모자보건학회), 김혜 영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창곤 선임기자(한겨 레신문),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석: 서형수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경철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박혜원 회장(한국아동학회), 양진욱 대표(굿네이버스 미래재단)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제1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KAL 열린토론회 및 KAL 현장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KAL(KICCE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의 일환으로 총 2회의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도 연구소 수행사업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과 세종시교육청의 '2019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KAL 현장간담회는 소장 및 원내 연구진이 2030세대의 육아정책 인식을 수렴하기 위해 원내 구성원과 시민단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원내 2030 구성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신호 명동과 함께 청년층의 육아정책에 관한 인식과 변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KAL 열린토론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20. 1. 29(수)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산후조리원 컨설팅사업 관계자	발표: 이정림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 이경희 원장(미르피아 산후조리원) 남정숙 원장(설렘 산후조리원) 유옥금 수간호사(전 고려대인산병원) 홍정민 팀장(일산차병원 입원간호파트) 김희선 교수(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손문금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참석: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기공모전 수상자
제2차	2020. 2. 20(목) 서울로얄호텔 그랜드볼룸	2019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 관계자	발표: 2019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사업 연구책임자 13인

KAL 현장간담회

구분	일시/장소	대상	주요 참석자
제1차	2020. 6. 10(수) 알로프트 명동	원내 2030 구성원	원내 20~30대 구성원 10인
제2차	2020. 9. 25(금)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5인
제3차	2020. 11. 19(목)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청신호 명동	청신호 명동 5인



제1차 KAL 열린토론회



제2차 KAL 열린토론회

국제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KICCE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태지역 유아교육·보육의 질 모니터링에 대한 개발협력 성과와 향후 과제(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utcomes and Future Tasks)'라는 주제 하에 Webinar로 개최되었으며, 아태지역 ECEC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ECEC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KICCE Seminar on Early Childhood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구분	일시/장소	주제	공동주최기관	주요 참석자
제3차	2020. 12. 21(월) Webinar	ECCE Policy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utcomes and Future Tasks	정춘숙 의원실	발표: 문무경 선임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Vitaliy Kim, Deputy Director(Ministry of Pre-school Education, Uzbekistan) Le Anh Vinh, Acting General Director(VINES) Vaciseva R. VEREBASAGA, Senior Education Officer(Ministry of Education, Heritage and Arts, Fiji) Nyi Nyi Thaug, Kyungah Kristy Bang(UNESCO Bangkok) Evelyn Santiago, Executive Director(ARNEC) 토론: Nirmala Rao 교수(University of Hong Kong) Ning FU(World Bank, Beijing Office) Francisco Benavides, ECD Advisor(UNICEF EAPRO)



제3차 KICCE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가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관계로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하였으며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학교적응, 아동발달, 양육, 인지 및 적응의 4주제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되었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희선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각 주제별 좌장으로 발표 및 토론을 이끌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요 참석자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020. 9. 25(금) 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 생중계 (YouTube)	분과별 주제발표: 학교적응, 아동발달, 양육, 인지 및 적응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주거공간과 결합시킨 모델을 만들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0년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을 구성하여 총 3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은 다양한 분야(교육, 환경, 도시, 건축, 교통, 주거 분야)의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3차에 걸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20. 10. 13(화) 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발산적 이해	기조강연: 백선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발표: 권미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손승우 전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소이 수석연구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길제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제2차	2020. 10. 27(화) 연구소 대회의실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건	발표: 박성철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천현숙 원장(SH서울도시주택공사 SH도시연구원) 장한별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김종빈 이사(사회혁신기업 더함)
제3차	2020. 12. 1(화) 온라인(ZOOM)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 방안	발표: 윤재석 과장(인천광역시육 육아지원과) 김지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정소이 수석연구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손승우 전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1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제2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제3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국회, 정부부처, 시민사회 및 학계와 공동으로 육아정책 관련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 토론회」,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국회토론회」,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정책토론회」 공동 주치를 통해 정부부처 및 국회와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참여를 통하여 대국민을 대상 성과확산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학술행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20. 1. 31(금) 한국보육진흥원 6층 교육장	2020 개정 표준보육 과정(안) 토론회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발표 1: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및 총론(안)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 2: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내용 개정안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 최혜영 창원대 교수) 토론: 이미정 교수(여주대) 정효정 교수(중원대) 전영희 원장(주은어린이집) 김진아 원장(DGB아이꿈터어린이집) 김성희 원장(홍제어린이집) 유정현 교사(경기엘림어린이집) 조혜정 교사(전공문테소리어린이집) 이지영 학부모(서울경찰청어린이집/0세반)
2020. 5. 28(목) 온라인 생중계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명견만 리: 빅 데이터에서 대 한민국의 갈 길을 찾 다 - 포용국가와 포용 성장의 전망	주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미래혁신 위원회 주관: 21개 소관 연구 기관, 통계청 통계 개발원, 한국기업 데이터, 한국국제 정치학회	발표: 영유아 교육·보육 변화와 전망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장)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 토론회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20. 8. 12(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국회 토론회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실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	발표1: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지원방 안(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2: 2019~2020 취약계층 전수조사 결과 및 한부모 실태 (이성재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발표 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례 및 정책제언 (송용욱 경기도청 평화기반조성과 과장) 토론: 박명숙 이사장(평화를 일구는 사람들)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이민영 교수(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장명선 교수(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박예영 이사장(통일코리아협동조합)
2020. 10. 8(목)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온라인 녹화중계 (YouTube)	장소플랫폼으로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사)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기조강연: 저출산정책과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 공간정책 방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발표 2: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3: 저출산·육아문제해결을 위한 주택정책방안 (임미화 전주대 교수) 토론: 김종빈 이사(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정미 정책보좌관(광명시청) 이삼수 연구위원(LH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왕건 본부장(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허선 원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 11. 20(금) 온라인 생중계 (YouTube)	2020 한국가족사회복 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부모가족에 대한 재조명과 정책적 대응방안	주최: 한국가족사회 복지학회, 육아정책연구소	기조강연: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복지정책의 변화-연민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성정현 협성대 교수) 발표 1: 자본주의, 복지 그리고 돌봄: 한부모 가족정책 패러다 임 전환을 중심으로(장수정 단국대 교수) 발표 2: 한국미혼모 가족의 양육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탈북모자 사망사건 1년 탈북 빈곤 한부모 실태 및
정부 대책 평가와 전망 국회토론회



장소플랫폼으로서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2020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유관기관과의 공동 개최 학술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주최 및 주관기관	주요 참석자
2020. 11. 23(월)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 리 체계 긴급점검 정 책토론회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고민정 의원실	발표: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김아름 육아정 책연구소 부연구위원) 토론: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선숙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서정환 대표((주)산모피아, 보건복지부 바우처등록업체)
2020. 12. 3(목) 온라인(ZOOM)	육아정책연구소·유네 스코한국위원회 공동 주최 콜로키움: 영유아 기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실천 방안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발표 1: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최근 세계 동향-유네스코를 중심으로(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발표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ESD 인식과 실행(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발표 3: 개정 교육·보육과정의 ESD 내용(김은정 제주국제 대 교수) 발표 4: 영유아기 ESD 국외 사례(장혜진 대구대 교수) 발표 5: 어린이집 ESD 적용 사례(이하나 Kt cs 루키어린이 집 교사) 발표 6: 유치원 ESD 적용 사례(김정연 삼성생별유치원 교사) 토론: 이선경 교수(청주교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 위원회 위원장) 조성연 교수(호서대, 前 한국아동학회장) 김혜애 교수(한양대, 前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신종범 팀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팀) 유청옥 원장(새싹유치원), 류미희 원장(부암어린이집)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정책토론회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 방안

업무협약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하여 연구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6개 기관과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실제 연구 수행 및 협력, 세미나개최, 기타 협력을 활발히 실시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3자 간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LG U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시	협력기관	협약내용
2020. 3.	17개 시·도교육청	[2020년 누리과정 포털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누리과정 포털지원서비스 운영 지원 - 응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보안관리 - 사용자 종합 지원 운영
2020. 4. 24(금)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인재양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아동복지분야 인재양성 연구·교육 관련 업무 협력 -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류 확대 - 기타 상호 협력
2020. 7. 23(목)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및 산모 건강지원 관련 연구를 위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 - 출산·육아 정책 연구 및 관련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 상호 연구수행 내용 발표 및 교류 등
2020. 9. 24(목)	SH서울주택 도시공사	[육아 행복 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관련 세미나·포럼 등 개최 교류·협력 - 기타 육아 행복 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등
2020 .10. 8(목)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국토·도시 분야의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출산·육아정책 적용 방안 연구 조사 및 교류·협력 - 국토·도시계획과 출산·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세미나·포럼 등 개최 교류·협력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 협력
2020. 12. 3(목)	LG U플러스	[ICT활용 아동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 아동을 위한 원격교육 연구 - 아동을 위한 원격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 원격교육 연구 및 확산에 기여한 유아 교사 및 예비교사 등에 대한 후원



업무협약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은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63호	2020. 3. 31	권두언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육아정책 방향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유해미 연구위원
			2019 장애 영유아 양육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박창현 부연구위원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정책동향	유치원 3법 통과 이후 유아교육의 변화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64호	2020. 6. 30	권두언	포용국가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차윤경 한양대학교 교수
		집중조명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정책동향	"잘 놀아야 잘 자란다", 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 개정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현황	성과공유팀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호수	발행일	구분	주제	집필자
65호	2020. 9. 30	권두언	코로나19 시대, 육아정책의 진화가 필요할 때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최윤경 연구위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방안	조숙인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66호	2020. 12. 31	권두언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육아정책과 공간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방안	강은진 연구위원
			가구특성별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권미경 연구위원
			양육친화 주거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유아교육·보육 질적 수준 지표와 국제 비교	김은설 국제연구실장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연구소 소식	성과공유팀

I. 연구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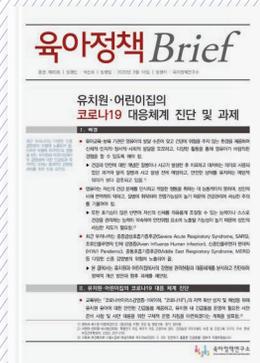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육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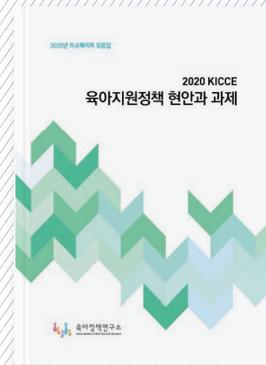
「육아정책 Brief」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안하는 정책현안지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아동학대 등 긴급현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 정책대응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80호	2020. 3. 16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81호	2020. 4. 14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최윤경 연구위원
82호	2020. 8. 1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원가정 보호원칙을 중심으로	김아름 부연구위원
83호	2020. 11. 17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소성, 조기 대처가 답	김은철 선임연구위원
84호	2020. 12. 31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9년 전문가·부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최윤경 연구위원

Issue Paper

「Issue Paper」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	2020. 6. 2	2019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2	2020. 6. 3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권미경 연구위원
3	2020. 6. 4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최효미 연구위원
4	2020. 6. 4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최효미 연구위원
5	2020. 6. 9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유해미 연구위원
6	2020. 7. 2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7	2020. 8. 11	보육교사의 부당 처우 경험 및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최효미 연구위원
8	2020. 8. 11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9	2020. 10. 13	초등입학기 자녀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10	2020. 12. 23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이윤진 연구위원
11	2020. 12. 3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양미선 연구위원
12	2020. 12. 30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	양미선 연구위원
13	2021. 12. 31	영유아기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 지표 구성과 활용 방안	도남희 연구위원
14	2021. 12. 31	국공립유치원 운영 모델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창현 부연구위원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6호	2020. 11. 30	Transition and Outlook of ECEC in South Korea	김은설 선임연구위원
17호	2020. 12. 31	Parental Demands on Support for Raising Children Under Three and Policy Suggestions	김나영 부연구위원
18호	2020. 12. 31	Parental Perspectives on Quality of their Life in Korea: Evidence from a Cross-Country Study	이재희 부연구위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26호	2020. 12. 31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II)	이정원 연구위원, 권미경 연구위원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2007년부터 학계, 정책 및 현장전문가, 관련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다루는 학술지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횟수를 늘려 새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학술지 유지로 선정되었으며, 총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4권 1호	2020. 6. 3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수영 (진주보건대 사회복지계열 강사) 이명신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의 현황과 과제	박소민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주영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정옥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 전공자 어머니의 육아 경험 의미	이영진 (중앙대 박사) 김미래 (우송정보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은형 (한국복지대 유아특수교육과 부교수) 김정숙 (부천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유아안전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이수재 (전북대 아동학과 시간강사)
		학령초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의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홍예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성정혜 (경북대 아동학부 외래교수) 김춘경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4권 2호	2020. 9. 30	부모 공동양육의 질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박선진 (연세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강민주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훈육유형 척도개발 및 타당화	최윤희 (가톨릭대학교 강사)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중단적 인과관계	김영미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겸임교수)
14권 3호	2020. 12. 31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강유진 (총신대 아동학과 부교수)
		유아의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장윤희 (가톨릭대학교 강사)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부의 공동양육이 모-영아 상호작용과 물리적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가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신유식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JCCPE)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로 세계적인 학술전문출판사인 Springer사의 Open Access 플랫폼인 'SpringerOpen'을 통해 전자저널로 발간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8년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2020년에는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4(1)	2020. 1. 13	Harmony or chaos? Beliefs and practices about conflicts among naturalized refugee children in Tanzania	Laurent Gabriel Ndiyuje (College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Dodoma)
14(3)	2020. 2. 24	Public or private? Determinants of parents' pre-school choice in India	Saikat Ghosh (Leibniz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jectories (LifEi)) Subhasish Dey (University of Warwick)
14(5)	2020. 5. 11	Implementation of policy, system and environment chang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Charlotte V. Farewell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Jamie N. Powers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Emily Maiurro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Sharon Scarbro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Jennie Quinlan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Jini Puma (Rocky Mountain Prevention Research Center, Colorado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14(6)	2020. 5. 13	Cultural responsiveness in the Incredible Years parenting programme for refugees: a case study	Anne Marit Vesteraas Danbolt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호수	발행일	주제	집필자
14(7)	2020. 7. 2	Playing well with others: a case study of collective impact in the early care and education policy arena	Sarah J. Zuckerma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manda L. Garrett (Buffett Early Childhood Institute, University of Nebraska) Susan Sarver (Buffett Early Childhood Institute, University of Nebraska) Catherine Huddleston-Casas (Buffett Early Childhood Institute, University of Nebraska)
14(8)	2020. 7. 23	The persistence of reading and math proficiency: the benefits of Alabama's pre-kindergarten program endure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 Preskitt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Public Health; Applied Evaluation and Assessment Center, Department of Health Care Organization and Policy, UAB School of Public Health) H. Johnson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Public Health) D. Becker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Public Health) J. Ernest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Education) M. Fifolt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Public Health; Applied Evaluation and Assessment Center, Department of Health Care Organization and Policy, UAB School of Public Health) J. Adams (Public Affairs Research Council of Alabama) T. Strichik (The Alaba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 Ross (The Alaba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 Sen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chool of Public Health)
14(9)	2020. 8. 3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in Greece	Christina Megaloidou (Dept. of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International Hellenic University)
14(10)	2020. 8. 3	Household factors associated with infant and under-five mortality in sub-Saharan Africa countries	Michael Ekholuenetale (Department of Epidemiology and Medical Statistics, Faculty of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Ibadan) Michael Ekholuenetale (Department of Mathematics, Rivers State University) Godson Tudeme (School of Medicine, College of Medical Sciences, University of Benin) Adeyinka Onikan (Program Management Unit, 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
14(11)	2020. 9. 10	A multileve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indergartners' creative dispositions in relations to child-level variables and teacher-level variables	Eun Jin Kang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4(12)	2020. 9. 11	Uptake of the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explor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mong families with a child under 12 years	Loanna Heidinger (Health Analysis Division, Applied Research Branch, Statistics Canada) Leanne C. Findlay (Health Analysis Division, Applied Research Branch, Statistics Canada) Anne Guèvremont (Health Analysis Division, Applied Research Branch, Statistics Canada)

IV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

K O R E A I N S T I T U T E O F C H I L D C A R E A N D E D U C A T I O N

-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중점연구사업
- 2021년도 사업개요
- 2021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2021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경영 목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연구 선도

국내외 의제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 실현

포용적 경영혁신을 통한
기관 위상 제고

연구 사업 관련 주요 국정 과제



연구 사업 운영 방향

- 정부의 국정과제 기초와 주부무처의 정책 기초와 부합하는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 부모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관련 연구
- 영유아 행복과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
- 보육·교육의 인적·물적 환경에 대한 연구
- 영유아 가구의 소비 및 육아물가 연구
- 육아정책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
- 코로나19 육아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 국제기구 및 동아시아, 유럽 관련 국제비교 연구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사업 추진

중점연구사업

|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 연구소 설립목적·비전과의 부합성
- 국가정책 현안과의 긴밀성
-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 국내·외 환경 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그 성과를 종합적,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세부전략, 소요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추진 현황 - 대국민조사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환경변화 전망 및 동향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초안)의 중요도, 우선순위도와 적합도 분석 -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정책 모니터링 방안 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상시위험으로 자리잡은 글로벌 감염위험과 환경의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여, 현재 아동과 청소년 및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양육지원체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현 시점 가능한 양육지원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육아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육아를 보장하는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체계를 제안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가져온 자녀 출산과 양육에의 변화 분석 -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드러난 육아분야 공백과 사각지대 분석 -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의 뉴노멀과 새로운 어젠더 요구 파악 -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모색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영유아 보육·교육 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출생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복합적이고 다면적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저출생 시대의 핵심정책인 육아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확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출생 0세 한국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 - 2020년대 육아정책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가정과 부모,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횡단적·종단적 영향 분석 - 기존 2008 아동패널 코호트의 발달적 변화, 성장환경 및 정책적 변화의 비교를 통한 육아정책 효과 및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근거 자료 도출 - 연간 1회 이상 공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산출하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학술적 연구 논문 발표 학술세미나 개최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2021년도 사업개요

| 기관고유사업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그 성과를 종합적,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 및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세부전략, 소요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2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와 지원요구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체계적인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에 기반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확보·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임.
3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지원) 방안 연구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현황 검토하고 이 지역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임.
4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녀 출산양육과 교육·보육 돌봄에 미친 영향 및 사각지대 파악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현행 양육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중장기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임.
5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과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가정내 육아서비스(아이돌봄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가구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기반의 육아와 가정내 육아서비스를 아동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임.
6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영유아의 적절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고 가정과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하는 정책연구임.

번호	과제명
	개요
7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교육방식을 제시하고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유아교사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하는 정책연구임.
8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의 이중언어 양육실태의 파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분석하여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임.
9	유아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놀이 활용방안 연구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발굴, 수집하여 지역사회 및 기관과 가정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전한 유아놀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보존, 계승하여 활용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인 전통놀이의 재발견을 통해 이론적·학술적·정책적 활용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초연구임.
1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영유아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사회 통합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임
1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교육·보육 정책 고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나아가야 할 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임

2021년도 사업개요

| 기관고유사업 |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함.
2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3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3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4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함.

| 일반사업 |

번호	과제명
	개요
1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KICCE POLL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한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조사를 1~4차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5년 연속과제 중 4차년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로써, 2차년도(2019년)에 개발하고 3차년도(2020년)에 수정·보완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정부가 추진한 육아정책을 진단·분석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향후 우선 개선과제를 도출함. 또한, 2020년도 육아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층 분석하여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함.
3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IV)
	5개년 연속과제로 총 2개의 세부연구 과제로 구성되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전년도 구축이 완료된 육아가구를 지속 추적 조사하여 육아부담 및 육아서비스 이용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해마다 신생아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해마다 새로운 코호트가 추가되며 표본의 수가 증가하는 구조임. 연구과제 1 'KICCE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V)'는 육아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행태 및 양육비용,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및 이용비용, 정책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육아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및 육아서비스 정책의 대안을 제시함. 4차년도 연구(2021년)에는 3차년도까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이 별도로 실시됨. 연구과제 2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II)'를 통해서도 정부의 비용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부담 경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육아품목에 대한 체감물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육아지원효과를 분석하고 육아용품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표로 제시하고자 함.
4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 시범 적용
	초저출산 사회 극복과 지역사회 역할 확장의 교두보로서 1차년도 기초 연구 이후 2차년도 지역 유형별 지표의 시범적용 실시, 3차년도 인증 사업 추진으로 정책의 실용화와 안착에 기여하고자 함.
5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초점을 두어 이로 인한 주변의 변화와 함의를 살펴봄.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과 전문성 발달과정 및 관계자들의 변화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6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III): 가정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다음 세대 구성원을 육성하는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사회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도출된 부정적 요소를 축소해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도모하고자 함. 3차년도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을 존중하는 육아문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전략을 제시함. 가정에서의 성평등한 육아, 육아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함.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2021년도 사업개요

| 일반사업 |

번호	과제명
	개요
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단적으로 파악함. 본 13차년도 연구는 2017년도에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가구특성을 축소하고 아동특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6학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변인을 수정·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함.
8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4000여 명의 2022년 출생 예정 신생아들을 태내 환경부터 출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총 10년의 기간 동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영·유아의 건강한 적응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며, 육아정책의 영향과 효과를 종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10	전산실 운영 사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11	홈페이지 및 정보인프라 개선사업
	리포지터리 고도화를 통한 연구자정보DB 구축 및 기관홈페이지 연계 뉴스클리핑 서비스 도입을 통한 국내육아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2021년도 연구사업 총괄표

| 기본 |

번호	연구과제명
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3	영유아 인구 희소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통합(지원) 방안 연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5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가정내 육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6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7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영유아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8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역량강화 지원 방안
9	유아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놀이 활용방안 연구
1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1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 일반 |

번호	연구과제명
1	행복한 유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V)
2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V): 2020~2021년 육아정책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3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V)
4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IV)
5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I):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 사업 시범 적용
6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7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III):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 II)
9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Korean ECEC Panel Study)

I. 연구소 소개

II. 2020년도 주요연구

III. 2020년도 주요활동

IV. 2021년도 추진계획

2020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0 Annual Report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

편집·제작 유월애 02 859 2278

본 간행물의 무단 판매 및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